

Since 1992
예술의 조력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ebruary 2026
vol. 410

T

C

H

I

K

A

S

K

V

Y

Sound of Busan :
올댓 차이콥스키

Cover Story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오즈의 마법사

2026 2. 28. SAT - 3. 1. SUN

토요일 15시, 19시 일요일 13시, 17시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원작 라이먼 프랭크 바움 각색/연출 윤준기 작곡 강현민 안무 안희경

아카데미생 권보영, 김봄, 김도형, 김려원, 김민솔, 김민아, 김성윤, 김소윤, 김지안, 김지울, 박서린, 박서연, 성시아, 안소윤, 이하린, 정서윤, 정지수, 정지우, 정채윤, 최아린

시립극단 황창기, 이현주, 김은희, 염지선, 이혁우, 김은옥, 서보기, 오희경, 채민수, 이태성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티켓가격** 전석 10,000원 **문의전화** 051)607-6000 (ARS 1번)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2026 신년음악회

Program

국악관현악 꿈의 자리
남도민요와 국악관현악 성주풀이 - 액맥이타령 - 진도아리랑
대금 협주곡 아르티
서도소리와 국악관현악 바람과 나무와 땅의 시
알리와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지우개 - 서약 - 가시연꽃 - 진달래꽃 피었습니다 - 아름다운 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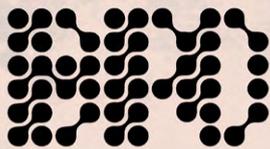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 이등훈
사회 손지현
대취타 부산실버취타대 시실리 자락
남도민요 박성희 정선희
대금 안현영
서도소리 유지숙 조윤희 이나라 장효선
가수 알리

2026. 2. 12. 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주최 smile! 금정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티켓 전석 20,000원 예매 art.geumjeong.go.kr 문의 051)519-5661, 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6

2026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BPO SYMPHONIC SEASON 2026

겨울, 꿈

그리그 / 피아노 협주곡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1번 <겨울날의 꿈>

*

지휘 홍석원 / 피아노 신창용

628

2026.2.26.(목) PM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www.bscc.or.kr

40 YEARS

2026년 2월 3일(화) 7:3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PROGRAM

Ha Soon-bong - Terribilità for Strings
G. Donizetti - Concerto for Horn and Orchestra
L. Sinigaglia - Romanze for Horn and Strings Op.3

A. Dvorak - Romance for Violin and String Orchestra in f minor, Op.11
F. Mendelssohn - 4 songs without words for Horn and Strings
L. Janáček - Suite for String Orchestra

창단 40주년 기념 BUSAN SINFONIETTA 40th ANNIVERSARY

부산신포니에타 호른리스트 라덱 바보락

Violinist Kim Jaewon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Director Kim Younghee
음악감독 김영희



Hornist Radek Baborák
호른리스트 라덱 바보락



BUSAN SINFONIETTA

티켓 전석 30,000원 (당일 현장매표 가능)
문의 010-3058-8640

예매 NOL ticket
nol.interpark.com/ticket

주최 부산광역시 후원 부산문화재단 BNL 부산은행
본 사업은 2026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Friendly Concert

프렌들리 콘서트



지휘자 우원석



금정구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천경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예술감독 박의영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26. 3. 7.(토) 1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예술의 초대 Since 1992

CONTENTS



- 08 김PD의 PD수첩 ①
프로그램북이라는 작은 우주

- 10 저작권과 문화예술
인공지능과 예술, 그리고 저작권

- 12 Cultural Issue
쇼스타코비치, 중요하지만 자주 오지 않은 이름

- 14 현대미술산책
리 크래스너, 예술을 위한 투쟁

- 20 Cover Story
부산 클래식의 저력
사운드 오브 부산: 올 댓 차이콥스키

- 26 Preview

- 30 Review

- 33 Program Guide

- 44 New Book

- 45 2026 공연프로그램 안내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February 2026

Vol.410

발행인 차재근

편집인 남영희

편집책임 남양욱

편집담당 정복엽, 박수빈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607-6000

발행일 2026년 1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프로그램북이라는 작은 우주

김민지

(재)부산문화회관 공연예술팀 차장

공연장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는 일. 매표소에서 티켓을 찾고, 그다음 자연스럽게 묻게 되는 말. “오늘… 프로그램북 있나요?”

이 짧은 한마디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이 함께 따라온다. 하나는 “오늘 작품은 어떤 이야기일까?”하는 설렘,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북… 오늘도 예쁘면 어떡하지. 또 모으게 되잖아”하는 약한 각오.

사람에 따라 공연은 티켓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좌석에 앉아 조명이 꺼지고 막이 오르면, 그 순간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연을 오래 사랑한 사람에게 프로그램북은 조금 다른 의미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남아 있는 기억을 붙잡아 두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이자 한 번 손대면 끝없는 수집으로 이어지는 위험하고도 사랑스러운 아이템이다.

어떻게 시작됐냐고 묻는다면…

내 프로그램북 컬렉션의 시작은 꽤 실무적이었다. 공연기획자로 첫 발을 들였을 때, 프로그램노트를 직접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논문을 읽고, 음악사 책을 찾아보고, 서점에서 자료를 뒤지며 ‘밤샘 과제 요정’처럼 살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프로그램북을 소장품이라기보다는 ‘내가 만들어야 할 결과물’로 바라보던 시기였다.

(재)부산문화회관에 처음 왔던 2017년에도 그 열정은 계속됐다.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프로그램이 전부 영화음악이라 VOD를 켜 두고 밤새 영화를 몰아보며 노트를 쓰던 기억이 난다. 한 편이 끝나면 다음 편, 또 다음 편. 지금 생각하면 거의 영화 마라톤에 가까웠다. (비디오 대어

점에서 테이프 고르던 세대인 나에게, 그 순간은 ‘아, 진짜 시대가 바뀌었구나’ 싶던 때였다.)

그렇게 열심히 쓰다 보니 결국 깨달은 게 있다. “아, 역시 프로그램노트는 전문가가 쓰는 게 맞다.” 관객에게 정확하고 공들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래서 지금은 음악평론가, 칼럼니스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원고를 의뢰해 프로그램북의 깊이와 밀도를 채워가고 있다. 특히 제작공연의 경우에는 연출, 작가, 디자이너, 작곡가 등 여러 창작자의 시선과 언어를 함께 담아낼 수 있어 프로그램북이 단순한 안내서를 넘어 ‘작품의 작은 백과사전’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장르가 달라지면 프로그램북의 성격도 확연히 달라진다. 뮤지컬, 연극 프로그램북은 말 그대로 팬서비스의 정점이다. 최애 배우 화보집 수준의 사진들이 가득해 “직업상 참고용으로 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덕질이 반, 참고가 반인 경우가 많다. 공연이 끝난 뒤 가방이 괜히 무거워지는 이유다.

책장을 열면 쏟아져 나오는 나의 공연사(史)

내 책장 한쪽은 수년간 모아온 프로그램북으로 뽁뽁하다. 이사를 몇 번 했는데도 아직 뜯지 않은 박스들이 있다. ‘언젠가는 정리하겠지’ 하면서도 막상 박스 앞에 서면 손이 잘 안 간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내가 걸어온 공연의 시간들이 그대로 들어 있기 때문이다.

가끔 책장 앞에 서서 프로그램북을 하나 꺼내보면 그 공연의 공기, 조명, 음악, 감정이 순식간에 되살아난다. 무대 위 배우의 표정, 특정 대사 한 줄,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

려왔었던 순간들까지. 어떤 공연은 이제 다시 볼 수 없어서 더 소중한 것이고 다시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 공연도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명동예술극장에서 봤던 ‘한때 사랑했던 여자에게 보내는 구소련 우주비행사의 마지막 메시지’ (원작 데이빗 그레이그, 연출 이상우). 지금도 ‘다시 보고 싶은 공연’ 1순위다. “이 작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돌아온 건 조용한 미소뿐이었다. 그때 느꼈다. 아, 어떤 공연은 정말 한 번뿐인 인연이구나.

영원히 기억 속에 남은 무대, 권혁주라는 이름

그리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공연도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2015년 10월, 공연을 보고 도저히 그냥 돌아갈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사인을 부탁드렸고 그는 따뜻한 미소로 흔쾌히 사인을 해주었다. 그 프로그램북은 지금도 책장 정중앙에 놓여 있다. 1년 뒤, 그는 하늘의 별이 되었지만 그의 음악은 여전히 내 옆에서 숨 쉬고 있다.



프로그램북 속 사인은 지금도 그날의 온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문득 이 이야기를 떠올리니, 오늘은 오랜만에 그의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을 다시 들어보고 싶어진다.

시대를 기록하는 작은 책

발레리나 강수진의 마지막 무대였던 ‘강수진 & 인스부르크 발레단 - 나비부인’. 이 공연은 그가 발레리나로서 공식적으로 무대에 선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그 프로그램북은 그래서 내게도 남다른 의미로 남아 있다. 한 무용가가 지나온 시간과 대한민국 발레의 역사가 한 순간에 겹쳐졌던 공연이었다.

그 무대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역사의 한 장면에 함께 있었다’는 묘한 감각을 남겼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한다. 공연은 한 시대를 잇는 경험이고, 프로그램북은 그 경험을 붙잡아 두는 아주 작은 기록이다.

종이나, 온라인이나

최근 ESG 경영 흐름 속에서 온라인 프로그램북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종이를 아끼고, 접근성은 높아지고, 관객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해졌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여전히 종이를 넘기는 감성이 좋다. 똑딱 소리 나는 스마트폰 대신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공연을 천천히 기억하는 방식이 아직은 내게 더 잘 맞는다.

그럼에도 시대의 변화는 반갑다. 어떤 방식이든 관객이 공연을 더 편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기억할 수 있다면 그건 프로그램북의 또 다른 미래일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건 딱 하나다. 공연장에서 프로그램북은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괜히 기분 좋아지는 아이템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프로그램북을 얼마나 찾으시나요?

나는 오늘도 공연장에서 프로그램북을 집어 들며 생각한다. 이 작은 책자 하나가 내 삶의 몇 페이지를 채우고, 어떤 기억을 다시 불러올지 모른다고. 다음 공연장에서, 책자 한 장 넘기며 우리가 조금은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기를 바란다.

인공지능과 예술, 그리고 저작권

계승균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수



I. 인공지능 르네상스 시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관심을 받고 있고 분야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아닐까 싶다. 신이 되려는 기술인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 자체뿐만 아니라 국가행정, 산업현장, 노동시장, 교육, 의료, 엔터테인먼트, 예술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가짜뉴스(fake news), 딥페이크(deepfake), 스미싱(smishing),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 역시 인공지능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더 광범위하게, 더 깊게 인간의 삶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

재의 발전 속도를 보면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유토피아(Utopia)를 만들어 줄 것인지 또는 디스토피아(Dystopia)로 인도할 것인지는 가늠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창작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에서 인간의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렸다. 단순한 인간의 창작행위를 보조하는 수단을 넘어서 이제는 독자적인 성과물을 생성해 내고 특히, 인간의 창작물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과물을 순간적으로,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제작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등장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의 사람은 창작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II. 인공지능과 창작행위

예술과 관련하여 의문이 드는 것은 인공지능이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제작한 것을 창작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은 인공지능이 창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인공지능이 제작한 것을 창작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두 문제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을 창작의 주체로 인정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권리 주체가 된다는 것, 저작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저작권료도 받을 수 있고, 저작권도 양도할 수 있고,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허락도 해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고 상속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아마도 독자들은 약간 이상하고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제작한 것을 창작물로 인정한다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즉 저작권의 객체가 된다는 의미이고 누군가 이것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인공지능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 역시 독자들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최근에는 또한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프롬프트(prompting)하는 것을 창작행위로 볼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다.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하는 것은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프롬프트는 검색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창작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창작행위를 인간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법률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인공지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인공지능이 제작한 것은 저작권법에서 의미하는 저작

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은 하나의 시스템이고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창작행위는 오로지 자연인만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프롬프트 역시 창작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III. 인공지능의 성과물과 저작권

앞서 언급한 대로 인공지능 성과물, 제작물은 저작권법에서 의미하는 창작물이 될 수 없다. 또한 인공지능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인간이 인공지능을 창작의 보조 수단, 도구로 사용한 경우에는 인간이 창작자가 되고 그 성과물은 저작물이 된다. 창작자의 저작물 작성 의도에 따라 구체적인 창작행위의 수단이나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우라면 창작자는 저작자가 되고 저작물은 저작물로 성립한다.

그리고 앞으로 창작행위와 관련하여 창작자가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표시하여 공표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를 하면 ‘저작자허위표시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창작윤리, 연구윤리에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생성한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생성하였다거나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앞으로 창작행위와 관련하여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고 창작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대두될 것이다. 특히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등장도 곧 예상되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창작윤리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을 인간의 저작물로 둔갑시키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6년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에서 저작자들이 인공지능 개발사를 대상으로 약 70건 이상의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쇼스타코비치, 중요하지만 자주 오지 않은 이름

송현민 음악평론가



1941년 당시 쇼스타코비치

2025년은 라벨 탄생 150주년(1875)과 쇼스타코비치 서거 50주년(1975)이 나란히 놓인 해였고, '짐노페디'로 유명한 에릭 사티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다. 그리고 2026년 쇼스타코비치는 '탄생 120주년'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올해는 그를 향한 축하를 보냄과 동시에 그의 작품 연주 현황을 점검하는 해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20세기를 관통한 교향곡 15곡

1925년, 그의 나이 열아홉에 발표한 교향곡 1번(1926/이하 괄호는 초연 연도)은 그를 '러시아의 모차르트'로 만들었다. 1927년의 교향곡 2번 '10월'은 러시아 혁명 10주년을 위한 기념비였고, '5월 1일(메이데이)'이라는 부제의 교향곡 3번은 노동자의 날을 기념한 곡이었다.

격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밀착된 그는 교향곡 4번(1961)을 준비하던 중 쓴맛을 본다. 1936년에 완성한 이 곡은 리허설 도중 오페라 '므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의 정치적 비판으로 말미암아 22년 후에야 빛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1936년부터 1939년 사이에 600명 이상의 작가, 예술가, 시인들이 수용소로 쫓겨난 것을 생각하면 피의 숙청을 면했으니 그나마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로부터 1년 뒤에 발표한 교향곡 5번(1937)은 러시아 사회주의 리

얼리즘의 요구에 부합해 만든 작품이었다. 이 곡은 러시아 혁명 20주년이던 1937년의 기념일에 발표되었다.

1941년에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제정러시아의 수도였으며 쇼스타코비치의 고향이자 러시아 제2의 도시였던 레닌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는 9월 8일 나치군에게 완전 포위되었다. 쇼스타코비치는 나치의 침공을 배경으로 이른바 '전쟁 교향곡'이라 불리는 교향곡 7번·8번·9번을 작곡했다. 7번 '레닌그라드'(1942)는 침공의 전반기, 8번(1943)은 침공의 후반기, 9번(1945)은 종전 후의 분위기를 담고 있다.

그러던 중 쇼스타코비치를 정치적으로 억누르던 스탈린이 죽었고, 쇼스타코비치는 1953년에 교향곡 10번(1953)을 작곡했다. 교향곡 11번 '1905년'(1957)은 1905년 당시에 널리 불린 혁명가의 선율을 그대로 사용했다. 교향곡 12번 '1917년'(1961)은 사회주의 혁명을 기념하는 작품으로, '레닌의 회상에 바친다'라고 악보의 첫 페이지에 적어 놓았다.

교향곡 13번(1962)의 부제는 '바비 야르'. 나치의 군대가 유태인과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을 학살한 우크라이나의 한 지명을 따온 것이다. 2악장부터 5악장까지 '유머' '상점에서' '공포' '출세'라는 부제가 붙었다. 어떤 지배자라고 해도 유머까진 지배할 수 없을 거라는 작곡가의 생각이 담긴 곡이었다.

만년에 이른 쇼스타코비치는 교향곡 14번 '죽은 자의 노래'(1969)를 작곡했다. 죽음을 주제로 한 가르시아 로르카, 아폴리네르, 릴케 등의 시들을 모아 노래한 곡이다. 죽기 4년 전인 1971년에 완성한 교향곡 15번(1972)에서는 장난감 병정들 행진 같은 첫 악장이 나온다. 로시니 '빌헬름 텔' 서곡의 일부를 장난스럽게 차용한 것이었다.

뒤늦게 찾아온 20세기의 고전

쇼스타코비치(1906~1975)에게는 '20세기 최고의 교향곡 작곡가'라는 호칭이 따라 붙지만, 한국 음악계에는 '중요하지만 자주 오지 않는 손님'에 가까웠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20세기 공산권의 소련 음악들이 예술의 시선보다 이념의 언어로 먼저 읽혀, 국내 음악계로 유입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국내 최초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연주로 자주 언급되는 사건은 1979년이였다. 레너드 번스타인(1918~1990)이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내한해 교향곡 5번을 올린 공연이였다. 한국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수용사(史)와 연주사(史)의 중요한 출발점이였다.

하지만 이념적 문제만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15곡에 이르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은 악단의 역량을 시험대에 올리기로 유명하다. 거대한 편성, 집요한 리듬의 지속, 금관과 타악의 압박, 저음 현악이 일구는 긴장감 등은 '기술적인 연주력'뿐 아니라 '해석의 체력'을 요구하는 요소들이다. 음악들도 겉으로는 축제의 행진처럼 들리는데, 한 겹 아래에서 불안과 공포가 도사린다. 밝은 장조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익살은 곧 그로테스크로 기울며, 리듬은 균화발처럼 반복된다.

게다가 체제와 반(反)체제, 사회와 예술 사이에서 양쪽을 고려하며 작품 세계를 펼쳤기에 그가 어느 '편'이였는지에 대한 논쟁은 사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

려진 줄리언 반스는 그의 이러한 심정을 소설 <시대의 소음>에 잘 담아냈다. 그래서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러시아 작곡가 한 명

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20세기라는 시대의 비극적 지점을 통과하는 경험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악단들의 쇼스타코비치 사용법

교향곡 5번은 한국에서 쇼스타코비치에게로 향하는 '입구' 역할을 자주 맡아온 작품이다. 비극→행진→아이러니→승리로 이어지는 드라마가 선명하고, 거대한 스케일보다는 집중된 긴장과 명료한 구조로 관객을 설득하는 작품이다.

올해는 그의 탄생 120주년을 맞아 교향악단들이 쇼스타코비치의 특정 작품을 넘어, 그에게 향하는 여러 개의 문을 준비 중이다. 특히 2월에 국내 대표악단 두 곳이 쇼스

타코비치의 대표작을 선보인다. 2월 2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KBS교향악단은 엘리아후 인발의 지휘로 교향곡 13번 '바비 야르'를 연주한다. 교향곡이지만, 베이스(그리고리 슈카루파)와 함께 하는 독특한 형식의 작품이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새 예술감독 로베르토 아

바도의 지휘로 2월 1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교향곡 1번을 선보인다. 올해는 쇼스타코비치의 탄생 120년이자, 교향곡 1번의 초연 100주년이기도 하다.

이외 수원시립교향악단이 교향곡 10번(3.21), 광주시립교향악단(4.10)과 대전시립교향악단(10.16)이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를 준비 중이다. 처음 내한하는 지휘자 테오도르 쿠렌치스와 유토피아 오케스트라는 11월 17~18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다니엘 로자코비치 협연)과 피아노 협주곡 2번(알렉산더 멜니코프)을 선보인다. 아쉽게도 부산에서는 아직 쇼스타코비치 공연 소식이 없다.

러시아와 유럽도 만반의 준비 중이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2025/26 시즌을 '120주년'과 교향곡 1번의 '초연 100주년'에 중심을 맞췄다. 네덜란드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는 '쇼스타코비치 120' 시리즈를 내걸었고, 예루살렘 현악 4중주단은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4중주 전곡(15곡) 프로젝트를 전면배치했다.

올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새해 첫날에도 민간 공격을 둘러싼 보도가 이어졌고,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전제로 대러시아 제재를 연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쇼스타코비치와 작품은 '20세기의 고전'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담고 있는 '현재의 예술'이 된다. 그의 음악이 세계 평화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비극을 미화하지 말라'는 경고, '기억을 지워버리는 체제에 맞서 기억을 소리로 보존하라'는 선언일 것이다.



쇼스타코비치를 기념한 러시아 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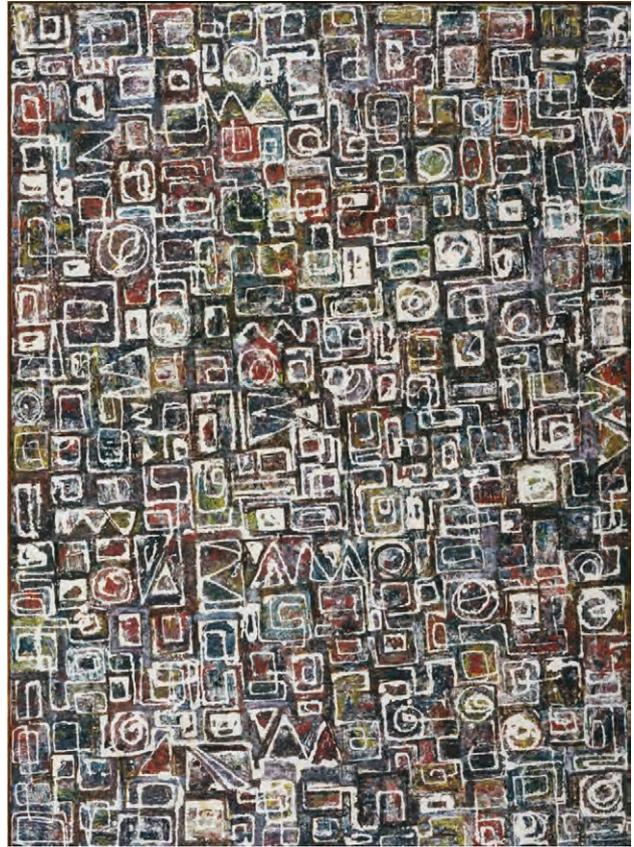
리 크래스너, 예술을 위한 투쟁

글 박승화 미학연구자, '새롭게 읽는 서양미술사' 저자

추상표현주의는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영웅적 남성성'을 상징하는 미술이 되었다. 예술 창작은 여성적 활동이라는 편견을 깨고, 화가들은 광활한 캔버스에 과거 미대륙의 정복자처럼 물감을 이리저리 뿌리거나, 색을 넓게 덧칠하며 무한한 화면을 만들었다. 재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사라진, 완전한 추상에 도달한 추상표현주의는 유럽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자 했던 미국의 이상에 부합하는 미술이었다. 한편, 추상표현주의가 유행하던 시절, 남성 작가 못지않은 혁신을 보여준 여성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1970년대 이후, 페미니즘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나서야 재평가받았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리 크래스너'이다.

뉴욕의 러시아 유대 이민자 가정 출신의 리 크래스너(Lee Krasner, 1908~1984)는 추상표현주의의 선구자로 평생에 걸친 회화적 실험을 통해 추상표현주의를 발전시켰다. 크래스너는 독일 출신 화가, 한스 호프만(Hans Hofmann, 1880~1966)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유럽 추상미술의 구조와 색채를 익혔다. 크래스너의 재능은 곧바로 두각을 나타내어, 호프만은 "작품이 너무 훌륭해서 여성이 그렸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다"라는 말을 남겼다. 호프만의 말은 전설이 되어 지금까지도 여성 작가들이 비판적 의미로 인용하곤 한다.

크래스너도 대공황 시기, 다른 화가들처럼 뉴딜정책의 공공미술 사업인 벽화 작업에 참여하면서 대형 화면을 경험했다. 나아가 크래스너는 구대륙에서 건



리 크래스너, 구성, 1949, 캔버스에 유채, 96.7x70.6cm, 필라델피아 미술관

너운 거장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을 뉴욕 청년 예술가들에게 소개하며 미국 추상미술의 최전선에서 활약했다. 크래스너는 1941년 한 전시에서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을 만났고, 그의 에너지 넘치는 작업에 매료되었다. 몇 년 후 1945년, 이들은 부부가 된다. 크래스너는 남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독자적인 스타일을 개척하기 위해 분투했다.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전반까지 크래스너는 '작은 이미지' 연작을 제작했다. 화면은 주로 작은 모자이크나 직조 형태의 올오버(All-over) 패턴이 덮고 있다. '구성'(1949)은 기하학적 형태가 가득한데, 마치 상형문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린 시절, 아버지 서재에서 봤던 정교한 장식의 히브리어 서적이 상상력의 원천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하학적 형태의 배경에는 다양한 색채가 조화를 이루며 고요히 자리하고 있다. 이를 본 비평가들은 크래스너가 남편

의 물감을 가지고 그의 역동적인 선을 정돈된 작은 도형으로 다듬어 놓았다고 평가했고, 이에 대해 크래스너는 “나는 폴록이 아니다”라고 반복해야 했다. 크래스너처럼 당시 추상표현주의 여성 작가들은 독특한 화법과 개성에도 남성 작가의 아류 정도로 취급되었다. ‘영웅적 남성상’이라는 하나의 가치 아래, 그 외의 것들은 평가절하된 것이다.

크래스너의 도움으로 폴록은 예술계에 발을 넓히며 의욕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1949년 개인전을 앞두고 ‘라이프(LIFE)’ 매거진에 폴록이 대서특필되면서 그의 유명세는 커져만 갔다. 그러나 작품 판매가 원활하지 못하면서 폴록의 불안감은 고조되었다. 1950년 전시에서 32점의 출품작 중 단 한 점만이 팔리면서 폴록은 절망했다. 물론, 이때 출품작 중 다수는 현재 폴록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크래스너 역시나 1951년 개인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좌절과 우울감을 겪었고, 몇몇 작품을 스스로 부수기도 했다.



리 크래스너, 무제, 1954, 캔버스에 유채, 접착제, 콜라주, 122x102cm, 개인 소장 ©Pollock-Krasner Foundation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술에 의지하던 폴록과 달리 크래스너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분투했다. 그녀는 자기 작품과 폴록의 실패작을 파괴하여 콜라주로 재 활용하면서 새로운 작품 세계를 열어갔다. ‘무제’(1954)에서는 거칠게 바른 물감과 기존 작품에서 잘라낸 콜라주가 구분 안 될 정도로 치밀한 구조 속에 녹아있다. 화면을 수직으로 가르는 기다란 검은 색은 야수가 할퀴 자국 같고, 군데군데 파란색은 작품에 생기를 부여한다. 그러자 작품은 절망보다는 야성적 에너지가 주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의 상징으로 변모한다. ‘흰머리 독수리’(1955)는 폴록의 작품을 활용한 것이다. 화면은 주황색의 따스한 기운이 지배하지만, 폴록의 드리핑 페인팅을 독수리 부리처럼 잘라 붙이자 드리핑 기법의 역동성이 강조되면서 화면에 활기가 들어찬다.

크래스너의 콜라주 작품은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의 후기 양식인, 종이를 잘라 붙이는 ‘컷아웃(Cut-outs)’을 응용하여 자신과 폴록의 작업을 재구성한 것이다. 1950년대 두 사람에게 동시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유명세 속에서 좋은 작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려 술에 의지한 폴록과 달리, 크래스너는 ‘콜라주’라는 지금껏 본인이 시도하지 않았던 형식을 가져와 실패한 작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크래스너의 콜라주 작품은 크래스너의 개인적 도약이면서도, 캔버스와 물감이라는 전통적인 재료를 통해 형식의 순수함을 지향하며 추상표현주의를 확장했다.

동시에 크래스너는 폴록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사람들은 폴록의 알콜중독을 도덕적 나태함으로 비난했지만, 크래스너는 치료 가능한 ‘병’으로 확신했고,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폴록의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화가들 사이에서의 경쟁과 창작에 대한 중압감은 폴록을 놓아주지 않았고, 폴록의 외도와 둘 사이의 다툼으로 크래스너는 유럽으로 떠났다. 얼마 뒤 1956년, 44세의 폴록은 음주운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폴록의 사망 소식에 크래스너는 귀국하여 장례를 치르고, 그해 뉴욕현대미술관에서 폴록 회고 추모전을 개최하는 데 앞장섰다.

폴록 사망 후, 크래스너는 헛간을 개조한 폴록의 스튜디오를 사용하면서 대규모 사이즈 작업을 전개해 나갔다. 이 시기, 크래스너가 내놓은 작품들은 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 1904~1997)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드 쿠닝은 인체를 해체



리 크래스너, 계절, 1957,
캔버스에 유채, 페인트, 235.6×517.8cm,
휘트니 미술관, 뉴욕

하고, 회화에서 사용하기 꺼렸던 ‘살구색’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1907)을 계승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며, 추상표현주의의 영웅으로 떠오르던 인물이었다. 입체주의와 드 쿠닝의 영향을 응용해 크래스너는 ‘예언’(1956), ‘탄생’(1956)과 같은 작품으로 상실과 슬픔을 승화했다. 마침내 ‘계절’(1957)에서는 속이 짝 찬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듯, 핑크빛으로 만개한 풍요의 여신이 피어난 듯 삶과 예술에 대한 예찬으로 가득하다.

1960년대가 되면서 크래스너의 작업은 더욱 격렬해졌다. ‘또 다른 폭풍(Another Storm)’(1963) 속에는 방향을 가늠하기 힘든 거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제목인 ‘Another Storm’은 삶에서 반복되는 위기와 격변 그리고 예술가로서 감내해야 했던 흔들림을 은유한다. 따라서

그녀의 작품은 파괴의 회화가 아닌 지속과 인내의 회화다. 화면에는 영웅적 제스처나 과시적 드라마가 없다. 대신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묵묵한 태도가 거칠지만, 단단한 붓질에 배어 있다. ‘또 다른 폭풍’은 삶이 계속되는 한 폭풍은 끝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붓을 들고자 하는 예술가로서 의지가 드러난다.

크래스너는 말한다. “나는 예술가이지, 여성 예술가가 아니다.” 크래스너의 유년 시절 이름은 레나(Lena)였지만, 성별이 모호하게 여겨지도록 리(Lee)로 바꿈으로써 작가는 사회가 붙여준 정체성에서 스스로 선택한 정체성으로 변모한다. 이후 폴록의 아내, 폴록의 미망인이라는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녔지만, 그녀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결국 ‘예술가’로 역사에 기억되었다.



리 크래스너, 또 다른 폭풍, 1963,
캔버스에 유채, 238.8×447.7cm, 개인 소장
©The Pollock-Krasner Foundation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낙동아트센터 970-277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가톨릭센터 공간101.1 462-1870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콘서트홀 640-8888

Invitation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액티스소극장 611-6616
 어텀씨어터 0507-1388-1447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인디아트홀 소극장 623-6232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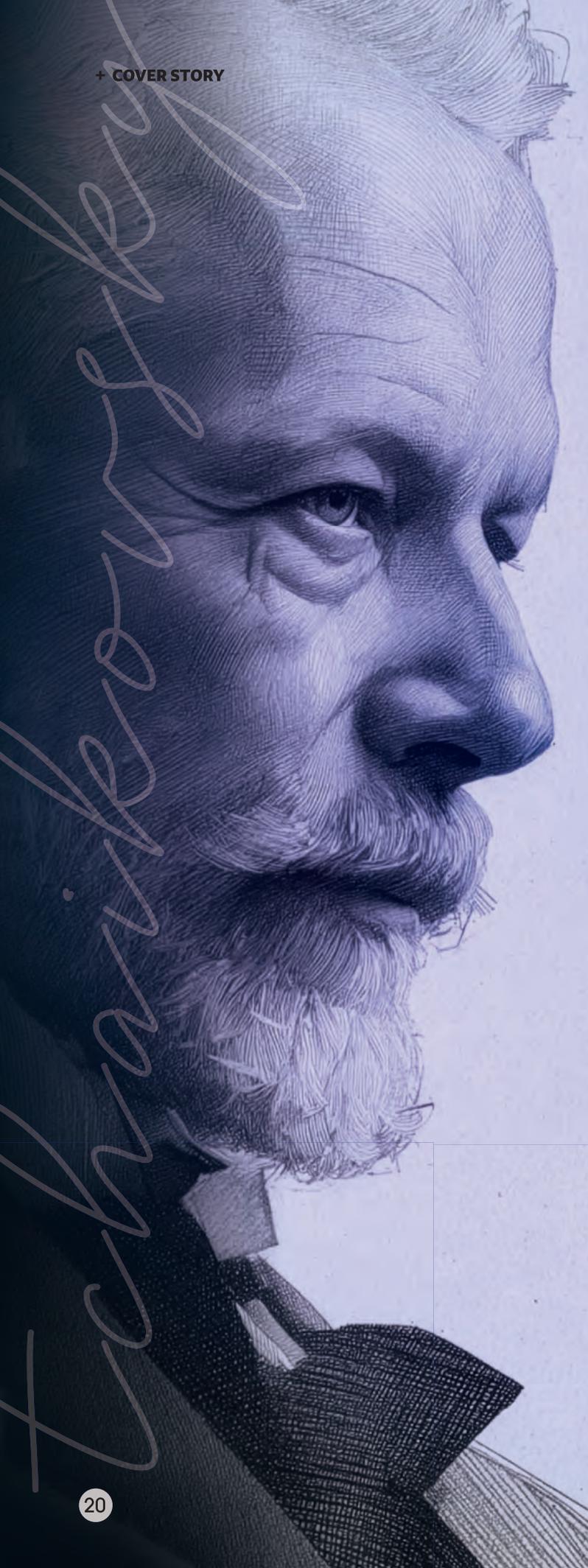
KBS부산홀 620-7181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부산 클래식의 저력 사운드 오브 부산: 올댓 차이콥스키

부산 클래식의 저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무대 ‘Sound of Busan’이 올해도 관객과 만난다. ‘Sound of Busan’은 (재) 부산문화회관이 공공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한 기획공연 시리즈로, 오랫동안 부산 클래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 활동해온 민간 오케스트라와 함께 부산 클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시리즈는 오케스트라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교향곡 사이클을 기획, 한 작곡가의 세계를 연속적으로 조명하는 한편, 지역 오케스트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보여줌으로써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는 공연예술 단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난해 그 첫 시작으로 완벽주의 작곡가 브람스의 교향곡 전곡 사이클을 선보였던 ‘Sound of Busan’은 올해는 후기낭만주의의 거장 차이콥스키를 통해 더욱 정제된 구성과 새로운 해석으로 한층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차이콥스키는 표제가 붙은 ‘만프레드 교향곡’을 포함하여 모두 일곱 개의 교향곡을 남겼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운명 3부작’이라 불리는 교향곡 제4번과 5번, 6번을 들려준다.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등 지역을 대표하는 세 개의 오케스트라가 참여하며,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외에도 서곡, 협주곡 등 그의 대표곡을 통해 낭만주의의 향연을 펼친다.

일시 2월 27일(금), 6월 19일(금), 8월 21일(금)
오후 7:30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금액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Sound of Busan: 올 댓 차이콥스키
#1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_교향곡 제4번



-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 지중배 •바이올린| 송지원
- 프로그램|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교향곡 제4번 사단조 작품 36

첫 무대의 주인공은 올해로 창단 33주년을 맞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예술감독 오충근)로, 차이콥스키의 내면적 고뇌와 운명에 대한 성찰을 담은 '교향곡 제4번'을 들려준다. 차이콥스키 스스로 이 곡을 '운명과의 투쟁'으로 설명하면서 흔히 '운명 교향곡'이라 불리는 이 작품은 어둠 속에서도 서정미를 잃지 않고 다시 환희로 나아가는 음악적 여정을 통해, 차이콥스키가 남긴 가장 인간적인 교향곡으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음악협회가 선정한 '미래의 거장' 10인에 이름을 올린 지휘자 지중배가 지휘를 맡아, 단단하면서도 균형감 있는 해석으로 차이콥스키 음악의 본질에 접근한다.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휘자 지중배는 거장 카라얀이 수석지휘자로 있었던 독일 울름시립극장 및 울름시립교향악단, 트리어시립극장 및 트리어시립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 및 음악총부감독으로 활동했다. 2012년 독일음악협회와 라이프치히오페라극장이 공동 주최한 독일 오페레타상 지휘자상을 동양인 최초로 수상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같은 해 오페라 오더-슈프레 오페라 페스티벌의 음악감독 및 지휘자를 맡기도 했다. 지중배는 '깔끔하고 단단한, 그리고 균형감 있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지휘자'라 평가받으며 바로크, 원전 연주부터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아우르며 다양한 장르의 무대에 서오고 있다.



지휘 지중배



바이올린 송지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이번 공연의 서막을 여는 곡은 러시아 가극 중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로, 악상의 명쾌함과 흥겨움 때문에 독립된 관현악곡으로 종종 연주되는 작품이다. 화려한 무도회를 배경으로 한 이 곡은 기품 있는 리듬과 우아한 선율, 장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어우러지며 오페라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생동감 있는 무대를 펼쳐 보인다. 이어 연주되는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는 차이콥스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낭만적 정서가 가장 아름답게 담긴 걸작으로 손꼽힌다. 러시아의 서정성과 화려한 기교가 어우러진 이 작품은 협연자의 섬세한 감성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동시에 요구하는 곡으로, 세계 유수 국제 콩쿠르에서 눈부신 수상 경력을 보유한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은 악기에 대한 탁월한 이해력은 물론, 생동감 넘치는 음색과 섬세하고 입체적인 해석이 겸비된 매력적인 연주를 선보이며 세계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2017년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1위 및 박성용영재특별상 수상을 비롯하여 2016 레오폴드모차르트국제바이올린콩쿠르 1위, 2014 중국국제바이올린콩쿠르 1위 및 특별상, 2014 엘리스 앤 엘레노어 쉰펠드 국제현악콩쿠르 1위 등 세계 유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제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1993년 창단 후 오랜 기간 부산 클래식계를 지켜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부산음악인시리즈, 국립오페라단 공연, 호세 카레라스 내한공연, 이태석 기념음악회,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오충근의 고고한 콘서트, 노자와 베토벤 등 관객 우선의 참신한 기획으로 부산 시민과 소통해왔다. 특히 2003년과 2004년 문화관광부 주최 전국 순회음악제에 지방 교향악단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201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기금사업 음악분야에서는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6월 19일(금)

Sound of Busan: 올 댓 차이콥스키
#2 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_교향곡 제5번



- 연주| 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 홍성택 •첼로| 송영훈
- 프로그램| '1812' 서곡 작품 49,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33, 교향곡 제5번 마단조 작품 64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정신으로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로, 이번 무대에서는 낭만주의 교향곡 레퍼토리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인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특히 이 작품은 '교

향곡 제4번'과 함께 '운명 교향곡'으로 불리는 작품으로, '운명'을 주제로 한 인간의 고뇌와 극복, 그리고 승리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그의 내면적 투쟁과 예술적 구원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차이콥스키 특유의 극적 감정선과 완성도 높은 구성미를 보여준다.



지휘 홍성택



첼로 송영훈



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이밖에 관현악의 화려한 사운드와 힘찬 에너지를 통해 공연의 장대한 서막을 여는 '1812' 서곡에 이어 18세기 고전주의 양식에 대한 차이콥스키의 애정을 담은 첼로 레퍼토리의 정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한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송영훈의 연주로 만나볼 수 있다.

지휘는 상임지휘자 홍성택이 맡아 섬세함과 감성적인 표현으로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한다. 2009년 창단한 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15년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된 후 개인과 기업의 후원으로 지속적인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8월 21일(금)

Sound of Busan: 올 댓 차이콥스키
#3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_교향곡 제6번



- 연주|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지휘| 우나이 우레초 주비아가 •피아노| 피터 오브차로프
- 프로그램|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내림나단조 작품 23, 교향곡 제6번 나단조 작품 72 '비창'

‘올 댓 차이콥스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주인공은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로,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제6번 ‘비창’을 들려준다. 차이콥스키가 생애 마지막에 남긴 가장 내밀한 고백이자 고통과 희망, 비애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감정선을 담은 걸작으로, 지휘자 우나이 우레초 주비아가가 치밀한 균형감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이 작품이 지닌 음악적 밀도와 내면적 울림을 진솔하게 전달한다.

이번 무대의 또다른 작품은 ‘피아노 협주곡 제1번’으로, 교향곡 제6번과 비교하여 형식과 감정에서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이 작품을 통해 두 작품이 지닌 극적 대비와 내면적 깊이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피터 오브차로프가 깊이 있는 해석과 세련된 음색으로 협주곡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지휘자 우나이 우레초 주비아가는 현재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교향악과 오페라를 아우르는 폭넓은 지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수원대학교 교수로 있다.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는 소아암, 심장

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음악으로 희망을 선사하고자 2006년 창단된 연주단체로,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을 주축으로 현재는 부산의 역량있는 연주자들이 함께하며 수준높은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지휘 우나이 우레초 주비아가



피아노 피터 오브차로프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Sound of Busan 2026

차이콥스키로 보는

부산 민간 오케스트라의 현재

🗨 박진홍 음악평론가

지난해, 부산문화회관이 민간 교향악단과 협업하여 무대에 올렸던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Sound of Busan’이 올해는 차이콥스키의 작품들로 관객들을 찾는다. 이번 공연을 통해 부산의 음악적 역량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면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을 찾은 세계적인 연주자들이나 서울 지역의 음악가들이 화제가 되거나 대형 프로젝트를 보여줌으로써 음악 문화를 풍성하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Sound of Busan’은 지역을 기반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 음악 단체들의 노고, 그 덕에 조금씩 쌓여 온 청중들의 경험이 단단한 음악적 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Sound of Busan’ 시리즈는 바로 이러한 경험치를 확인하는 동시에 부산의 음악 문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참신한 기획이다. 지역 민간 오케스트라가 주체가 되고, 부산을 대표하는 공연장으로서 부산문화회관이 이를 포용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맡는 것은 여러 모로 의미가 크다. 또한 관객들은 각기 다른 세계의 오케스트라가 보여주는 다채로운 음악적 색채를 느껴보면서 아카데미한 음악감상의 경험을 갖게 되면서 성장 중인 부산의 클래식 음악 문화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26년 올해, ‘Sound of Busan’의 프로그램은 차이콥스키의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많은 음악 애호가들은 차이콥스키의 작품들에서 장대한 서사와 강렬한 정서, 감정과 표현의 대비에 매료되기에 그의 작품을 좋아한다. 그래서 익숙하고 아끼는 만큼, 작품의 해석과 연주 기량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도 흥미로운 감상 관점의 하나이다.



2025년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이번 기획에서는 세 번의 공연에 걸쳐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4번, 5번, 6번을 중심축에 놓고, 각 무대마다 성격이 뚜렷한 관현악곡과 협주곡을 배치했다. 첫 번째 무대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중배가 지휘봉을 잡고, 오랫동안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안정적인 앙상블과 신뢰를 쌓아 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가 맡는다.

BSO는 오페라 ‘에브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로 문을 연다. 이 곡은 단순히 화려한 외견에 취하면 안 된다. 삶의 권태, 사랑과 상실, 그리고 러시아 귀족 사회의 문제점을 음악으로 풀어내고 있으므로 이를 드러내는 오케스트라의 전개, 리듬과 음향의 내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어 연주되는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35’는 차이콥스키의 협주곡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사랑받는 작품이다. 이날 협연은 콩쿠르 퀴이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이 맡는다. 이 곡에서 오케스트라는 단순한 반주의 역할이 아니라 독주자와 감정적 소통을 하는 파트너이다. 이에 솔리스트의 기교, 서정성과 더불어 오케스트라와 이루어지는 섬세한 호흡이 돋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향곡 4번 연주에서는 구조를 명확히 세우는 동시에 정서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해석이 요구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지휘자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역량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무대는 홍성택이 지휘하는 부산네오피엘하모니오케스트라가 이어받는다. 네오피엘은 참신하고 유연하게 시대적 감각을 반영한 레퍼토리를 선보여 온 단체이다. 연주할 첫 작품은 ‘1812년 서곡’이다. 화려하고 장엄한 사운드 뒤에 숨어 있는 차이콥스키의 사회적, 정서적 양면성과 역사적 서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로코코 테마에 의한 변주곡’은 차이콥스키의 작품 가운데 비교적 절제된 고전적 감성을 지닌 곡으로, 첼리스트 송영훈이 협연에 나선다. 첼로와 오케스트라



2025년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부산네오피엘하모니오케스트라)

사이의 섬세한 대화가 요구되는 작품인 만큼 네오피엘이 지닌 유연한 앙상블 감각과 잘 어울리는 레퍼토리이다.

마지막 곡으로 교향곡 5번이 연주된다. 외형적으로는 극복과 승리의 서사를 담고 있지만, 그 내부에는 끊임없는 불안과 흔들림을 품고 있는 작품이다. 그동안 섬세하고 감성적인 연주로 작품의 본질의 깊이를 표현해 온 홍성택의 해석이 작품이 가진 외연과 내면의 경계와 균형을 어떤 사운드로 관객들에게 전할지 기대된다.

시리즈의 마지막은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가 ‘피아노 협주곡 1번’과 교향곡 6번 ‘비창’으로 장식한다. 이 두 곡은 차이콥스키 음악을 정서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정점에 있는 두 곡이다. 스페인 출신의 지휘자 우나이우레초 준비야가가 지휘봉을 잡고 러시아 피아니스트 피터 오브차로프가 협연에 나선다. 첫 곡 ‘피아노 협주곡 1번’은 화려함과 서정, 긴장과 유머를 고루 품어 다채롭게 변화해 간다는 면에서 대단히 극적인 작품이다. 그동안 오페라 무대를 통해 이야기의 전개와 인간의 내면을 잘 표현해 인정받아 온 지휘자와 러시아의 진한 감성을 그대로 전해 줄 피아니스트가 만나 드라마틱한 전개를 선보일 예정이다.

비창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온몸과 언어를 읊아매는 슬픔이다. 교향곡 6번의 연주에서는 비창이 가진 의미처럼, 차이콥스키의 내면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을 과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절제된 흐름 속에서 표현해 나가는 고뇌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2026 신년음악회



지휘 이동훈

2월 12일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리는 2026 신년음악회를 통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지역 사회와 더욱 가까이 호흡하는 공공예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악관현악의 웅장한 울림 속에 남도·서도·중부권의 다양한 음악,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어우르며 새해의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한다.

첫 곡 '꿈의 자리'는 꿈이 머무는 내면의 공간을 국악관현악의 음색으로 풀이한 작품으로, 고요함과 역동성을 오가며,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음악을 실천하는 단체인 부산실버취타대 시실리자락이 무대에 함께 선다. 이어서는 박성희, 정선희 두 소리꾼이 남도민요 '성주풀이-액막이타령-진도아리랑'을 들려준다. 성주풀이와 진도아리랑은 남도 특유의 토리로 불리는 대표적인 곡들로, 남도민요의 정서를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대금 협주곡 '아르티'는 특정한 의미를 규정하지 않은 제목의 작품으로, 듣는 이가 각자의 감상으로 완성해 나가는 음악이다. 국악적이면서도 이국적인 음악 어법 속에서 다른 삶과 기억의 조각들을 담아내는 곡으로, 이번 무대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안현영이 협연한다. 이어지는 '바람과 나무와 땅의 시'는 황해도 재수굿인 철물이굿을 새롭게 구성한 곡으로, 바람, 나무, 땅이라는 자연의 요소를 통해 순환과 공존의 질서를 그린 작품이다. 유지숙, 조윤희, 이나라, 장효선 서도소리 명창들이 재수와 소망을 기원하는 흥겨운 무대를 펼친다.

마지막 무대는 대중가수 알리(ALi)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협연으로 꾸며진다. 국악관현악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지우개', '서약'을 비롯해 '가시연꽃', '진달래꽃 피었습니다' 등 대표곡들이 전통 악기의 깊은 호흡과 알리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어우러진다. 마무리 곡 '아름다운 강산'은 연주자와 관객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새해의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공연은 이동훈 예술감독의 지휘와 아나운서 손지현의 사회로 진행된다.



가수 알리



남도민요 박성희, 정선희

대금 안현영

서도소리 장효선, 이나라, 조윤희, 유지숙



취타대 시실리자락

2월 12일(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28회 정기연주회

겨울, 꿈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북유럽을 대표하는 작곡가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과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1번 '겨울날의 꿈'을 통해 겨울 끝 무렵, 꿈과도 같은 무대를 선사한다.

2월 26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628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객원지휘자 홍석원이 지휘하고 K-클래식의 흐름을 주도하는 클래식 스타 피아니스트 신창용이 협연한다.

수석객원지휘자 홍석원은 '젊은 명장'이라는 찬사와 함께 한국 음악계를 이끄는 지휘자로, 전통적인 관현악 레퍼토리는 물론 현대음악과 오페라의 깊이 있는 해석으로 국내외에서 명성을 얻고 있다. 2025년 9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음악 축제인 무직페스트 베를린의 폐막 무대와 BR 무지카 비바 시즌 오프닝 무대를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성공적으로 치러 현지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첫 곡인 '피아노 협주곡'은 노르웨이의 쇼팽으로 불리는 그리그의 유일한 피아노 협주곡으로 노르웨이 민요풍의 청순한 선율, 신선한 화성, 절묘한 리듬 등 정열이 넘치는 작품이다. 피아니스트로 두각을 나타냈던 그리그가 자신의 재능을 뽐내기 위해 작곡한 곡으로 대담하고 극적인 오프닝으로 시작해 짙은 서정성과 토속적 리듬 선율이 돋보인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신창용이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을 투명한 음색과 균형 잡힌 감성으로 작품의 서정성을 섬세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2016년 뉴욕 카네기홀 데뷔 무대에서 폭넓은 표현력으로 일찍부터 주목받아 온 신창용은 2018년 지나 바카우어 국제콩쿠르 한국인 최초 1위, 2017년 서울국제음악콩쿠르 1위, 2016년 힐튼 헤드 국제피아노콩쿠르 1위를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다. 2021년 롯데콘서트홀을 포함 4개 도시의 리사이틀 투어와 2023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리사이틀을 가졌으며 2024년, 2025년 아트센터인천 마티네 시리즈의 호스트로 선정되어 협연과 실내악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친 바 있다.

이번 무대의 또 다른 연주곡인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1번 '겨울날의 꿈'은 26세의 젊은 차이콥스키가 모스크바 음악원 재직 시절 완성한 초기작으로, 러시아 민속 선율과 낭만적 정서를 섬세하게 융합해 교향곡 작곡가로서의 출발을 알린 작품이다. 차이콥스키의 서정성과 낭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부드러운 현악의 흐름과 목관의 따뜻한 음색이 어우러져 러시아 겨울의 서정미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2월 26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라보'의 클래식 상자 - 하이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클래식을 쉽고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시리즈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 관객과 만난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감상이 아닌 이해와 체험을 중심으로 한 예술 교육형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클래식 음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라보의 클래식 상자'는 챔버오케스트라 연주에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연주와 이야기, 시각적 요소가 어우러진 무대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음악적 감수성을 자극하며, 클래식 음악이 지닌 즐거움과 매력을 흥미롭게 전달한다.

올해는 고전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이든'을 주제로 펼쳐진다. 시간여행 가이드 '라보'와 함께 오래된 '클래식 상자'를 열어 하이든의 음악 세계로 떠나는 특별한 여정을 담았다. '브라보'에서 이름을 따온 인물 '라보'는 현재를 사는 존재로, 잠에서 깨어난 하이든과 함께 아이들을 재미있는 클래식 세계로 안내한다. 공연이 시작되면 무대 위 영상 속에 거대한 클래식 상자가 등장하고, 라보와 관객들이 함께 "라보라보 브라보!"를 외치는 순간 클래식 상자가 열리며 하이든을 만나게 된다. 이후 상자속에서 하늘을 나는 '종달새', 갑작스러운 소리로 웃음을 자아내는 '놀람 교향곡', 똑딱똑딱 규칙적인 리듬이 인상적인 '시계 교향곡' 등 하이든의 대표 작품들이 차례로 펼쳐진다. 각 장면별 이야기와 시각적 연출이 음악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작품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이끈다.



라보 서선택



시간여행 가이드 '라보' 역에는 부산 연극인 서선택이 참여해 생동감 있는 연기를 선보인다. 극본은 기획부터 연출, 작곡, 연주를 아우르는 올-타 대표 김혜지가 집필해 음악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연주는 음악을 통해 관객과 깊이 소통하며 영감을 선사하는 라보챔버오케스트라가 맡아, 소규모 편성의 장점을 살린 명료하고 섬세한 사운드로 각 악기의 개성과 음악적 디테일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라보'의 클래식 상자 - 하이든은 아이들에게 클래식 음악과의 첫 만남을 즐거운 기억으로 남겨주는 무대다. 이야기를 따라가며 듣고, 보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음악과 한층 가까워지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2월 28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30개월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오즈의 마법사

부산시립극단이 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오즈의 마법사’로 2026년 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다.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는 어린이들이 연극 공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연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연극의 저변 확대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부산시립극단이 201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오즈의 마법사’는 지난해 11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어린이 배우 20명이 연기, 노래, 춤의 트레이닝을 거쳐 무대에 선다.

2월 28일, 3월 1일 양일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리는 ‘오즈의 마법사’는 라이먼 프랭크 바움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다. 캔자스에 사는 소녀 도로시가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오즈의 나라에 가게 된 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에메랄드 시티의 마법사 오즈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그린다. 여정 속에서 똑똑해지고 싶은 허수아비, 심장이 필요한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를 만나 함께 서쪽 마녀를 물리치며 각자의 소원을 이루고, 도로시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험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연출가 윤준기는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무지개 너머 환상의 나라 오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통해, 공연을 함께 하는 어린이 친구들과 나아가 관객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



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또 무슨 일이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즈의 마법사’를 연출했다.

현재 극단 드렁큰씨어터의 대표로 활동중인 윤준기는 부산문화회관 주최 신진예술페스티벌 초청작 ‘최저인간’, 부산소극장연극협회의 주최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우수작 선정 ‘더위 죽어도 여름’, 부산시립극단 스태프로젝트 ‘사자의 편지’, 연극 ‘열세 번째 아이’ 등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2018년 부산연극협회 올해의 연극인상, 2020년 가마골 창작 희곡 공모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오즈의 마법사’는 환상의 나라 오즈를 배경으로 지혜와 사랑, 용기의 가치를 전하는 작품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를 통해 선발된 어린이들이 그동안의 배움과 성장을 무대 위에서 직접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연 이상의 도전과 성취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월 28일(토) 오후 3:00, 오후 7:00, 3월 1일(일) 오후 1:00,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5 제야음악회를 보고 ①

시민에 내어준 무대, 음악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다

글 권성은 (사)부산음악협회 회장

제야음악회는 한 해의 끝을 장식하는 상징적인 공연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몇 해 동안 그 자취를 감추었고, 긴 공백 끝에 다시 무대에 오른 것은 2024년이였다. 다소 특이했던 점은 시민 연주자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기존 제야음악회가 부산시립교향악단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던 만큼 적잖이 의아함이 들었다. 공연 시간 또한 통상의 관례와 달랐다. 밤 10시 무렵 시작해 제야의 종을 함께 맞이하던 방식 대신, 일반 음악회처럼 저녁 7시 30분에 막이 올랐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지만, 전해 들은 '2024 제야음악회'의 후기는 신선했다. 시민 연주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음악회의 서사로 엮였고, 구순을 넘긴 플루티스트가 하모니카 협연으로 깊은 감동을 남겼다고 했다. 개성 출신의 그는 피아노 전공으로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으나, 6·25전쟁으로 부산에 내려온 피란민이었다.

아쉽게도 2024년 공연을 직접 관람하지 못했기에, 필자는 기대와 설렘을 안고 2025년 제야음악회를 찾았다. 이번 음악회의 중심 서사는 '비움'과 '채움'이었다. 에릭 사티의 삶과 음악을 통해 고요한 성찰에서 희망의 고조로 이어지는 음악적 흐름을 구성하며 관객에게 따뜻한 여운을 전했다. 기인으로 알려진 그는 감정의 과잉과 거대한

스케일의 음악이 지배하던 19세기 말, 기존의 음악미학과 허례허식적인 감상 태도에 맞서 '비움의 미학'을 추구한 작곡가다. 모든 것을 털어내고 핵심만 남긴 그의 음악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나간 것들을 비우고 새로움을 맞이하자는 제야의 메시지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었다.

오프닝 곡은 2024년에 이어 다시 한번 '소나무야'가 선택되었다. 잔잔하게 시작한 음악은 각종 타악기가 화려하면서도 섬세하게 더해지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사철 푸르름을 지키는 소나무의 이미지는 지난 한 해를 묵묵히 견뎌낸 우리 자신의 모습과 겹쳐지며, 제야음악회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손색이 없었다.

제1부의 마지막 곡은 하이든 교향곡 제45번 '고별' 4악장이었다. 연주자들이 하나둘 무대를 떠나는 퍼포먼스로 잘 알려진 이 작품은, 보면등을 끄며 퇴장하는 연출을 통해 관람의 재미를 더했을 뿐 아니라 '비움'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제2부에서는 부산 출신 성악가들이 출연해 탄탄한 연주력을 선보였고, 객석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2025년 제야음악회가 지닌 의미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시민 연주자 35명이 무대에 올랐다는 점이다. 특히 부산문화재단의 '15분도시 생활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화사업'과 연계해 수영·구락·장전·40계단 등 네 곳의 생활문화센터가 협업했다. 2025년 7월 참여자 모집을 마치고 8월부터 연습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야음악회는 단발성 공연이 아니라 긴 호흡의 프로젝트였다. 무대의 중심에 '완성된 결과'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올려놓은 셈이다. 1988년 개관 이래 전문 예술의 상징으로 자리해 온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을 시민에게 개방한 선택은, 공연장 환경 변화의 시점에서 (재)부산문화회관이 지향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둘째, 시민은 단순한 참여자나 관람객이 아니라 이 공연의 주체이자 주인공이었다. 시민 연주자들의 연주는 기교의 완성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대신 음악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다져가는 시간과 사연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참여 계기가 소개될 때마다 '누가 연주하는가'보다 '왜 연주하는가'를 되묻게 되었다. 현악기의 넥에는 핑거링 포인트가 테이핑되어 있었고, 비브라토가 구현되지 않아 초보 연주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단정한 연주복과 진지한 눈빛, 그리고 집중력만큼은 그 어떤 전문 연주자에도 뒤지지 않았다. 오랜 시간 함께 준비한 끝에 무대에 오른 그들의 모습은 실로 감동적이었다. 관객 또한 그 도전과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그 순간의 에너지는 각자의 삶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셋째, 일본의 저명한 애니메이션 감독 야마무라 코지의 작품이 실연과 함께 상영되었다는 점이다. '사티의 파라드'는 에릭 사티의 발레 음악 '파라드'에 맞춰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 라이브 오케스트라 연주로는 세계 초연이었다. 코지 감독은 아무런 대가 없이 상영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직접 부산을 찾아 객석에서 관객과 인사를 나누었다. 대본 장 콰토, 음악 에릭 사티, 무대미술 피카소, 안무 레오니드 마신이 결합한 '파라드'는 그 자체로 전통적 예술 형식을 깨뜨린 혁신의 산물이다. 코지 감독의 애니메이션은 이러한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움'으로 채우자는 제야음악회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필자는 부산대학교와 독일 에센 폴크방 음대에서 오보에를 전공했고, 현재 (사)부산음악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문 연주자이자 음악 단체의 책임자로서 음악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늘 고민한다. 특히 부산 지역 음악인의 감소와 청년 음악인들의 일자리 부족은 깊은 숙제다. 이번 제야음악회는 음악이 지역과 지역민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함께 성장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음악은 무대 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객석과 일상 속에서 시민의 삶과 호흡할 때, 그 본연의 가치가 비로소 빛난다.

2025년의 마지막 밤, 부산문화회관은 화려함 대신 차분하고 의미 있는 사유의 시간을 선사했다. 그것은 곧 '예술이란 무엇인가', '공공 공연장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진 순간이었다.



2025 제야음악회를 보고 ②

문화는 참여하는 자의 것

글 조의수 (재)부산문화회관×부산문화재단 시민오케스트라 단원

2025 부산문화회관 제야음악회는 ‘에릭사티와 음악으로 그리는 비움과 채움’을 주제로 하여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하였다.

2025 제야음악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재)부산문화회관과 부산문화재단에서는 15분도시 생활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민 누구나 일상속에서 악기를 배우고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7월, 시민오케스트라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나는 ‘문화는 참여하는 자의 것’이라는 신념으로 장전 생활문화센터 바이올린 파트에 신청하여 선정이 되었다.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거점별 생활문화센터의 청년 음악전공자가 선생님이 되어 주 1회 정기연습과 합주를 하였고, 2025 사회참여예술 컨벤션에도 참가하였다. 컨벤션에서는 각 생활문화센터의 단원들이 도모현에 모여 부산시장님과 시민들을 모시고 첫 연주회를 가졌다. 아름답게 잘 꾸며진 도모현 정원, 잔디 위에는

다양한 체험부스가 차려져 시민들이 즐기고 있었고, 야외에서 진행된 시민오케스트라 연주회는 청중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시민들과 함께 낙엽이 구르는 소리를 가까이 느끼며 음악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지워지지 않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본격적으로 2025 제야음악회 연주를 위한 연습이 시작되었는데, 아뿔사! 여러 옥타브를 오르내리는 음표가 가득찬 악보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려운 곡을 어떻게 소화하지? 아마추어 실력으로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담당 선생님들의 적극적 가르침과 손가락에 물집이 생길 정도의 맹연습을 통해 드디어 연주곡의 완성된 모습을 하나, 둘 갖추게 되었다.

리허설은 부산문화회관 다듬채에서 5일간 진행되었는데 이동신 지휘자의 지휘 아래 첫곡 ‘소나무야’를 연주하였다. 한해동안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비움과 채움으로 승화해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실력은 부족하였지만 지휘자의 인도와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어려운 대곡들까지 무사히 연주할 수가 있었다.

드디어 12월 31일 제야음악회 무대의 막이 오르고 한국 한국 연주곡이 끝날 때 마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는 “혹시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기우로 만들었고 나에게 가슴 벅찬 감동의 물결을 선사해 주었다. 솔로 바이올리니스트 정원영 선생님과 협연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영광이었고, 2025년도의 마지막 송년무대를 이렇게 멋지고 당당하게 시민들과 함께 장식할 수 있었으니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재)부산문화회관과 부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모자라는 기량을 여기까지 올려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생활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같은 프로그램들이 계속되어서 살기 좋고, 또 살고 싶은 문화의 도시, 부산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부산신포니에타 창단 40주년 기념 제109회 정기연주회

부산신포니에타 창단 40주년과 한국-체코 수교 35주년을 기념하여 체코 출신의 세계적인 거장 호르니스트 라덱 바보락(Radek Baborak) 초청으로 마련되는 기념무대.

부산신포니에타는 지난 1986년 김영희 전 부산대학교 교수를 리더로, 부산의 실력있는 연주자들로 창단된 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초청연주회를 통해 수준높은 공연을 선보여왔다.

이번 무대에서 지휘 및 협연을 맡은 라덱 바보락은 40년 이상 국제 무대에서 활동해온 호르니스트이자 2010년부터는 지휘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보락은 솔리스트로 베를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비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비롯한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사이먼 래틀, 다

니엘 바렌보임, 세이지 오자와, 블라디미르 아슈케 케나지 등 저명한 지휘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2021년부터 체코 서보헤미안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맡아오다 올해부터는 명예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바보락은 일본 아미가타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지휘자 및 음악 파트너, 브란덴부르크주립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상주 솔리스트/지휘자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번 무대의 협연자로 무대에 서는 악장 김재원은 오슬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객원 악장으로 초청받았으며, 취리히 톤할레오케스트라 부악장을 역임하고 파리오케스트라 부악장으로 선발된 바 있다. 2025년 7월까지 프랑스 툴루즈 카피톨 국립오케스트라 종신악장으로 활동했던 김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발령 받아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과 체코 출신 작곡가들의 곡을 비롯하여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음악감독/김영희

- 🎵 2월 3일(화) 오후 7:30 중극장
- 🎟️ 전석 3만원
- ☎️ 부산신포니에타 010-3058-8640



최주호 피아노 리사이틀

중앙대학교 음악학부에 재학 중인 피아니스트 최주호의 무대.

고전의 명료함에서 낭만의 심연으로 향하는 특별한 여정을 그린 무대로, 1부에는 모차르트 소나타 12번의 유려함과 베토벤 후기 소나타 30번의 철학적 깊이를, 2부에서는 슈만 교향적 연습곡의 다채로운 변주를 통해 피아노의 한계를 넘는 오케스트라적 색채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최주호는 학구적인 해석과 섬세한 터치로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 🎵 2월 5일(목) 오후 7:30 중극장
- 🎟️ 초대
- ☎️ 최주호 010-4842-9157



오페라 데뷔 40주년 기념 '프리미돈나김유섬과 AMICI' 오페라 페스티벌

오페라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소프라노 김유섬의 특별한 무대.

마리오 델모나코 국제 콩쿠르에서 2회 연속 1등, 빠도바 국제콩쿠르 1등 등 다수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이름을 알린 김유섬은 이태리 페르니의 베르디 극장에서 오페라 '라보엠'으로 데뷔한 후 독일 본 국립오페라극장에서 주역 오페라 가수로 활동했다. 한국 창작오페라 '황진이' 주역으로 6년에 걸쳐 일본 신국립극장, 미국 할리우드 코닥극장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김유섬은 현재 국립창원대 음악과 교수, 라 스텔라 오페라단 예술감독으로 있다.

- 🎵 2월 7일(토) 오후 5:00 중극장
- 🎟️ 초대
- ☎️ 루체살레 010-5015-9215



유나이티드 코리안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29회 정기연주회

유나이티드 코리안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제29회 정기연주회로 관객들을 만난다. 클래식부터 영화음악,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청소년 연주자들의 열정과 성장이 고스란히 담긴 공연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세대를 넘어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며 일상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 지휘/최혁준
- 호른/김재윤

- 🎵 2월 8일(일) 오후 5:00 중극장
- 🎟️ 초대
- ☎️ UKO 010-4544-4966



가연 앙상블 연주회

Moments of Harmony

'가족의 인연'을 뜻하는 가연 앙상블의 'Moments of Harmony'는 부산을 고향으로 둔 음악가 가족들이 세계 각지에서 유학과 연주 활동을 거쳐 2026년 부산에서 다시 만나는 특별한 무대이다.

클라리넷 문진성, 바이올린 서은아, 피아노 김명현, 기타 진영빈, 첼로 문주원·서성은, 작곡 진소영이 참여하며, 바흐, 쇼팽, 베토벤, 브루흐의 작품을 중심으로 솔로부터 듀오, 트리오, 앙상블까지 다채롭고 깊이 있는 음악을 들려준다.

- 🎵 2월 28일(토) 오후 3:00 챔버홀
- 🎟️ 초대
- ☎️ 작곡동인 세움 010-3024-7877



**어린이 뮤지컬 '렛잇고' 시즌3
엘사의 숨겨진 세상**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모티브로 창작한 극단 예일의 '렛잇고'는 지난 6년간 전국 200여 개 도시를 순회하며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발레와 뮤지컬의 콜라보 무대로 제작된 이번 '렛잇고3' 버전에서는 'Let it Go'를 비롯해 'In to the Unknown', 'Show Yourself' 등 '겨울왕국' OST가 라이브로 연주되며 관객들을 겨울왕국 속으로 이끈다.

- 극작, 연출/이광열

- 📅 2월 7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4:30 소극장
- 🎫 전석 4만원
- ☎ 극단예일 02-555-0822



SOUL'D OUT 2st CONCERT

소울드아웃 콘서트는 예술인들이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로컬 기반 문화 플랫폼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지역 예술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댄스 콘서트이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 '스트릿 맨 파이터', '스테이지 파이터'를 통해 전국 대중에게 사랑받은 스트릿댄스와 코레오그래피 퍼포먼스를 무대에서 직접 만날 수 있다.

특히 서로 다른 춤 스타일의 콜라보 무대와 DJ 라이브 퍼포먼스가 결합된 공연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댄스 공연을 선사한다.

- 📅 2월 8일(일) 오후 6:00 소극장
- 🎫 전석 3만5천원
- ☎ 소울드라이브아트웍 808-0822



더 필하모닉 브라스

빈필하모닉과 베를린필하모닉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외 유수 오케스트라 브라스 단원들이 만드는 금관 사운드의 향연 '더 필하모닉 브라스'.

음악 장르의 고난이도 벽을 넘나들며 자유로움을 구사하는 금관악기 대표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더 필하모닉 브라스는 이번 무대에서 쇼스타코비치의 '축전 서곡'을 비롯하여 베르디, 로시니, 푸치니의 대표적인 서곡으로 꾸며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영화 '해리포터', '인디애나 존스', '스타워즈' 등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 OST를 들려준다.

- 📅 2월 3일(화) 오후 7:30 부산콘서트홀
-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학생석 1만원
- ☎ 부산콘서트홀 640-8888



오페라 아이다

낙동아트센터 개관을 기념하여 기획부터 제작, 무대 기술, 출연진 구성까지 낙동아트센터의 역량으로 완성시킨 오페라 '아이다'.

베르디가 수에즈운하 개통을 기념하여 작곡한 '아이다'는 섬세한 심리묘사와 웅장한 스케일이 어우러진 걸작으로, '정결한 아이다', '오 나의 조국' 등 주옥 같은 아리아와 '개신 행진곡'의 압도적인 장면으로 유명하다.

- 연출/최이순
- 지휘/정병휘
- 연주/낙동아트센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 📅 2월 5일(목)-일(금) 오후 7:30, 7일(토)-8일(일) 오후 5:00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
-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 ☎ 낙동아트센터 970-2771

2월 금정수요음악회

4일(제914회) 차호철 클라리넷 독주회



클라리네티스트 차호철이 바로크에서 현대까지, 시대와 감성의 변화를 잇는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피아니스트 송준섭이 함께하며,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번 바단조 작품 120'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11일(제915회) 소리연구회 소리 숲 '소리의 대화'



창단 13년 차 예술단체인 소리 숲이 한국의 전통악기 '피리'를 중심으로 소프라노, 바이올린, 피아노 앙상블 무대를 준비했다. 소리연구회 소리 숲은 국가무형문화유산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 김지윤을 주축으로 구성된 팀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윤희하의 '보리밭'과 윤이상의 '고풍의상' 등 한국 가곡을 시작으로 슈베르트와 볼프의 독일 가곡,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카치니의 '아베마리아' 등으로 이어지는 소리 숲만의 품격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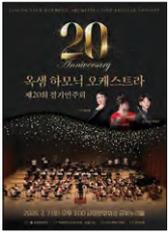
- 피리/김지윤
- 바이올린/조현미
- 피아노/이진성
- 소프라노/김승현
- 작곡, 편곡/한재성



**25일(제916회)
인디케이트 피아노 듀오
'Minimalism-Clarity'**
피아니스트 황혜영, 김지후로 구성된 인디케이트 피아노 듀오의 무대.

'미니멀리즘'을 주제로 한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에서 아무도 선보이지 않았던 세계 유명 작곡가들의 6개 초연곡을 포함하여 라벨의 '볼레로'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 매주 수요일 오후 7:30(18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 전석 1만원
- ☎ 금정문화회관 519-5664



옥섬하모닉오케스트라 제20회 정기연주회

동래초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옥섬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음악을 통해 바른 마음과 열정, 꿈을 키워가고 있는 옥섬하모닉오케스트라는 지난 2005년 결성된 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동래음악제, 옥섬가을음악회, 학예제 등 학내 행사와 찾아가는 음악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등 외부 연주회를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해오고 있다.

- 지휘/박진홍
- 플루트/김단아 • 클라리넷/박재경

- 🎫 2월 7일(토) 오후 3: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 🎫 무료
- ☎ 예술기획 010-4909-7444



F1963 겨울음악회4 첼로의 대화

첼리스트 첼로덕과 제임스 김, 피아니스트 조영훈이 함께하는 F1963 겨울음악회 네번째 무대 '첼로의 대화'.

이번 무대에서는 쇼팽, 드보르작, 리스트, 다비도프 등 클래식 명곡 외에도 성시경과 아이유의 듀엣곡 '그대내요', 영화 '대부' 주제곡 등 대중에게 익숙한 곡들로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간다.

- 첼로/첼로덕
- 첼로/제임스 김
- 피아노/조영훈

- 🎫 2월 7일(토) 오후 4:00 F1963 석천홀
- 🎫 전석 3만원
- ☎ 문화재단1963 760-1812



부산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로, 예술교육을 통해 협동, 이해, 질서, 소속감, 책임감의 가치를 배우는 부산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무대.

부산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봉사 연주, 뮤직캠프를 개최하며 클래식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화합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정현진의 지휘로 브람스 '헝가리무곡 제5번', '맘미미아' OST, 피아졸라 '망각' '리베르탱고'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 2월 8일(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 🎫 무료
- ☎ 부산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010-8844-0506



을숙도문화회관 예술공감

10일(제81회) 환경콘서트 '이웃과 자연'

플루트, 오보에, 피아노 3중주와 감성적인 나레이션으로 구성된 무대로, 음악을 통해 자연과 이웃,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느낄 수 있다.

24일(제82회) 사람과 지역을 잇는 포크콘서트 '포.인.트 (Folk Tender)'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 윤도경 밴드의 포크콘서트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좌절과 기쁨을 노래로 들려준다.

- 🎫 2월 10일(화), 24일(화) 오후 7:30
- 🎫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 🎫 전석 1만원
-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영상콘텐츠 Re:Star 시리즈

The Original Three Tenors(1990)

다시 보고 싶은 영화와 영상을 만날 수 있는 영도문화예술회관 영상콘텐츠 Re:Star 시리즈.

2월에는 1990년 로마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고대 로마의 유적지에서 펼쳐진 세계 최정상 3대 테너 공연 실황 'The original Three Tenors'가 무료로 상영된다. 특히 'The original Three Tenors'는 세계 오페라계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며 치열한 자존심 싸움을 벌였던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가 함께 한 공연으로, 당시 큰 화제를 모았던 무대이다.

- 🎫 2월 11일(수) 오후 7:00 영도문화예술회관 본래홀
- 🎫 무료
-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한정민 피아노 독주회 Image & Feeling

한양대학교 피아노과와 프랑스 파리 에콜 노르말,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한정민 독주회.

한정민은 그동안 예술의전당, 해운대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등 다수 공연장에서 독주회를 가졌으며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부산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Image & Feeling'이라는 주제로 슈베르트의 '즉흥곡 D.899'와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을 들려준다.

- 🎫 2월 13일(금)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 ☎ NOLE켓 1544-1555



**지브리와 사랑에 빠지다
지브리 영화음악 콘서트**

모든 세대가 사랑하는 스튜디오 지브리 OST를 클래식 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피아노, 타악기로 구성된 클래식 앙상블의 라이브 연주와 아티스트의 해설을 통해 지브리 OST를 대표곡들을 깊이 있게 만나볼 수 있다.

출연진

- 퍼커션, 해설/이상준 • 바이올린/권수진
- 첼로/이희수 • 클라리넷/김보경
- 피아노/박현우

- 🕒 2월 14일(토)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 전석 4만원
- ☎ 스테이지M 0507-1338-4810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겨울의 끝, 봄의 문턱에서**

첼리스트 이명로, 이석민, 플루티스트 신혜원, 피아니스트 박민희,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우가 선보이는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2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제2번', 몬티의 '차르디시' 등 클래식 명곡과 '원령공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OST가 어우러져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 🕒 2월 21일(토)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 🎫 전석 3만원
-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콘브리오 제22회 정기연주회

부산대학교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인 콘브리오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콘브리오 오케스트라는 2012년 창단 후 체계적인 연습과 합주를 통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폭넓고 깊이 있는 레퍼토리 선택과 진정성 있는 연주로 관객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제22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멘델스존의 교향곡과 서곡을 비롯한 작품들을 통해 그의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인 음악 세계를 보여준다.

- 지휘/정현진

- 🕒 2월 22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 🎫 무료
- ☎ 콘브리오 오케스트라 010-8712-9081



11시 브런치 콘서트 카프리치오 & 랩소디

'카프리치오&랩소디'란 특별한 주제로 관객과 만나는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2월 무대. 환상곡(Fantasy), 광시곡(Rhapsody), 기상곡(Capriccio), 즉흥곡(Improptu)에 이르기까지 정형화된 틀을 깨고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을 담아낸 선율을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가 어우러진 트리오 앙상블로 들려준다.

연주에는 클라리넷 김우연, 첼로 박건우, 피아노 문재원이 함께하며 월간 '객석' 편집장이자 음악평론가인 송현민의 해설이 곁들여진다.

- 🕒 2월 24일(화)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 전석 2만원(커피 포함)
-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수요상설 onStage
아코디언 듀오 콘서트 바람주머니에 담긴 세상**

프랑스의 우아한 샹송과 뮌헨의 낭만으로 문을 열고 이탈리아 나폴리 민요의 열정, 러시아 민속곡과 우즈베키스탄 가요의 깊은 정서, 아르헨티나 탱고의 애절한 선율, 그리고 한국 전통민요의 흥과 한까지 세계 각국의 다채로운 음악이 아코디언 연주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의 연주곡은 성악가 조수미가 사랑하는 아코디언의 거장 알렉산더 웨이킨의 독창적인 편곡으로 재탄생된 작품들로, 국내에서는 오직 이 무대에서만 만날 수 있다.

- 🕒 2월 25일(수)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 🎫 전석 1만원
-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부산솔리스트앙상블이 들려주는 봄의 소리

부산·경남 지역의 교수와 강사, 전문 성악가로 활동 중인 남성 성악가들로 구성된 부산솔리스트앙상블의 무대.

부산솔리스트앙상블은 매년 70여명의 남성 성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웅장하고 감동적인 남성 보이스 오케스트라의 무대를 선사해오고 있다. 특히 남성 성합창단만의 깊이 있고 풍부한 화음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이번 공연에서는 가곡을 비롯하여 오페라, 종교합창, 영화 주제곡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 2월 26일(목)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 🎫 전석 1만원
- ☎ 동래문화회관 550-6611



하우스 콘서트 찰리정 밴드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소울 짙은 음악을 기타의 선율에 담아내는 기타리스트 찰리정 밴드와 함께 하는 하우스 콘서트.

찰리정은 스탠더드 재즈가 담긴 'EP<Upside Down> (2008)'을 통해 국내에 이름을 알렸으며, 그동안 음악적 근간이 되어온 블루스를 주축으로 록, 재즈, 팝 등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여왔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뮤지션과 관객이 가까운 거리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하우스 콘서트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 기타/김성원 • 베이스/김대경
- 드러머/고명석

- 🎫 2월 27일(금)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 🎫 전석 2만원
-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킹스 싱어즈 내한공연

완벽한 하모니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아카펠라 그룹 킹스 싱어즈가 뛰어난 예술성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인다. 아카펠라계의 '비틀스'라 불리는 킹스 싱어즈는 그들만이 지닌 앙상블 음악의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한계가 없는 레퍼토리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킹스 싱어즈는 아카펠라의 다채로운 매력과 음악적 깊이를 보여줄 예정이다

- 🎫 3월 1일(일) 오후 5:00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
-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합창석 2만원
- ☎ 낙동아트센터 970-2771



퀵 방송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65년의 역사를 지닌 퀵(WDR)방송 오케스트라가 8년 만에 갖는 내한공연.

세계 최정상 지휘자 안드리스 포가가 지휘를 맡아 정통 독일 사운드를 전하며, 독일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다니엘 뮐러 쇼트와 한국의 떠오르는 신예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이 듀오 협연을 맡아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작품 12'로 무대를 빛낸다.

- 🎫 3월 5일(목) 오후 7:30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
- 🎫 R석 12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합창석 3만원
- ☎ 낙동아트센터 970-2771



연극 스위치

4D 기술로 구현되는 감각적이고 화려한 공포의 결정판으로, 공포 연극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과 패러다임을 모조리 '스위치' 한다.

과거 극장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을 조사하던 유기자는 고연출의 연속된 공연 흥행과 과거의 사건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직감하고 그의 수상한 행적을 쫓기 시작한다. 관객들은 무대 위 인물들과 함께 점점 깊어지는 공포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며, 마지막 순간 예측할 수 없는 반전과 만나게 된다.

- 🎫 1월 8일(목)~3월 22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5:3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 🎫 전석 4만원
-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연극 오늘도 극한직업

사파리와 롤러코스터가 결합한 신개념 놀이기구 사파리 익스프레스에서 벌어지는 멸종위기 나무늘보의 월드와이드 짝짓기 프로젝트 '오늘도 극한 직업'.

프로젝트 성공 후 포상금을 향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의지를 불태우는 사파리 익스프레스 직원들의 이야기가 코믹하게 펼쳐진다.

- 🎫 1월 15일(목)~4월 5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 🎫 전석 4만원
-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시간의 저편에서 - OTHELLO Part II

셰익스피어 '오텔로' 이후의 서사를 현재의 언어로 확장한 심리극.

같은 순간을 다르게 기억하는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배신과 악의가 아닌, 말하지 못한 감정과 침묵이 만든 관계의 균열에 주목한다.

특히 이번 작품은 최소한의 장치 속에서 배우의 언어·호흡·감정 밀도를 극대화한 2인극으로, '오텔로', '테베 3부작' '리어왕' 등 고전 인물의 불안과 균열을 설득력있게 구축해온 배우 이동현과 섬세한 감정 표현의 배우 이은주가 긴장감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 🎫 2월 13일(금) 오후 7:00, 14일(토) 오후 4:00 일터소극장
- 🎫 전석 2만원
- ☎ 창작집단 한 010-4846-1765



김시라의 품바 : Original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감동을 전하는 무대 '품바'가 다시 돌아온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 교차하는 이 작품은 신명나는 장단 속에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21대 품바 하성민, 11대 품바이자 3대 고수 이시찬이 관객과 만난다.

- 작/김시라
- 연출/최성봉

- 🕒 2월 22일(일) 오후 2: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 ☎️ ㈜중은콘서트 1833-4581



초록마술사의 스토리텔링 매직쇼

미술에 스토리를 더하고 교육적 목표를 결합한 참여형 교육 미술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탐구력 창의력 집중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초록마술사의 스토리텔링 매직쇼.

20년 경력의 초록마술사가 직접 제작한 공연으로, 마임·연기·음악·춤 등 다양한 예술적 연출과 재미있는 멘트를 통해 교육 내용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특히 엄마 아빠 말 잘 듣기, 바른 말 사용, 친구와의 관계 등 스토리텔링을 통해 아이들의 몰입을 이끌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전한다.

- 🕒 1월 1일(목)~2월 22일(일) 토요일 오후 1:00, 3:00,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초록마술극장
- 🎫 1만2천9백원
- ☎️ 초록마술극장 010-7517-5859



라이브 가족뮤지컬 빨간모자

잘 알려진 동화 '빨간모자'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일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안전 약속을 주제로 하는 가족뮤지컬.

심부름을 떠난 빨간모자가 엄마의 당부를 떠올리며 위험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기, 수상한 어른의 도움 요청 시 주변 어른에게 알리기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특히 객석 플레이와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어린이들이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처음 뮤지컬을 접하는 아이들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 🕒 2월 1일(일) 오후 1:00, 3:00,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 전석 4만원
- ☎️ ㈜조이컬처 070-7807-0701

연극

가족극



라이브 가족뮤지컬 별거벗은 임금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안데르센의 동화를 원작으로, 관객 스스로 생각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작된 가족뮤지컬 '별거벗은 임금님'.

특히 배우들이 객석으로 찾아가 관객들과 함께 임금님의 옷 꾸미기에 참여하는 등 객석과의 거리감을 좁힌 관객 체험형 뮤지컬로, 아이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작곡은 물론, 동요의 편곡과 개사를 통해 어린이 관객들이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다.

- 🕒 2월 7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4:00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문화홀
- 🎫 전석 4만원
- ☎️ ㈜조이컬처 070-7807-0701



어린이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

나쁜 생활 태도와 버릇을 돌아보고 올바른 습관 형성을 돕는 건강교육 뮤지컬로, 코를 후비면 콧구멍이 커지고, 귀를 잡아당기면 귓볼이 늘어나는 등 어린이들이 자주 하는 행동의 결과를 과장된 표현으로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잘못된 습관을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즐거운 공포'를 콘셉트로, 아단치기보다 뮤지컬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이들의 연령과 특성을 반영한 귀엽고 단순한 구성으로,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 🕒 2월 7일(토) 오후 1:00, 3:00,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 전석 4만원
- ☎️ ㈜조이컬처 070-7807-0701



라이브 가족뮤지컬 라퐁젤

웃음과 감동이 어우러진 코믹 판타지 뮤지컬 '라퐁젤'. 마법의 금발 머리카락을 가진 라퐁젤이 우연히 탑에 들어온 도둑 플린을 만나 숲과 마을, 등불이 날아오르는 밤을 지나며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닫는 이야기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웃고 노래하며 즐길 수 있다.

특히 채져 있는 가사와 감동적인 멜로디, 탑 속에서 숲속 세상으로 이어지는 무대 전환과 생동감 넘치는 연출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 🕒 2월 14일(토)~15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9층 문화홀
- 🎫 전석 4만원
- ☎️ ㈜조이컬처 070-7807-0701



라이브 가족뮤지컬 잭과 콩나물

어린이들에게 신비한 상상력을 선사하는 가족뮤지컬 '잭과 콩나물'.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디즈니 풍의 고급스러운 음악,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극의 몰입을 돕고, 땅 아래 잭의 집에서 거인의 성까지 움직이는 3D 배경 영상은 관람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 📅 2월 22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문화홀
- 🎫 전석 4만원
- ☎ 쥬조이컬처 070-7807-0701



가족뮤지컬 백설공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명작동화 '백설공주'를 뮤지컬로 제작한 무대.

백설공주와 친절한 난쟁이들이 만나 펼치는 모험과 우정의 이야기로 쉬운 스토리와 라이브 음악과 춤, 그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가 더해져 어린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빔프로젝터를 활용한 무대 연출을 통해 마치 숲과 성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함께 느낄 수 있다.

- 📅 2월 22일(일) 오전 11:00, 오후 1:30, 3:30
부산예술회관
- 🎫 전석 9천9백원
- ☎ (주)모멘텀아트 070-7349-7549



2026 베스트셀러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독일 유명 작가 베르너 홀츠바르트 원작의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똥'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해가 났는지 확인하려고 땅 위로 고개를 내민 두더지의 머리 위에 똥 무더기가 떨어지고, 화가 난 두더지는 범인을 찾기 위해 모험을 시작한다. 똥의 다양한 모양과 소리, 두더지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아이들은 사고력과 판단력, 창의력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다.

- 📅 2월 28일(토) 오후 2:00, 4: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 🎫 전석 4만원
- ☎ 좋은사람들 070-7807-0701



가족뮤지컬 에그박사-해적 보물섬의 비밀

바다 탐험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과학과 뮤지컬, 놀이가 어우러진 해양 생태 체험형 공연.

LED와 프로젝터, 특수조명으로 구현된 무대는 바닷속 환경을 입체적으로 재현하고, 거대한 해양 생물들의 시각적 퍼포먼스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다. 특히 노래와 액션이 어우러진 무대는 환경 보호 메시지를 웃음과 감동으로 전한다.

- 📅 3월 7일(토)-8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KBS부산홀
- 🎫 1층석 7만원
- ☎ 극단국민 010-4095-3005



가족뮤지컬 피터팬

환상의 나라 네버랜드에서 펼쳐지는 피터팬과 친구들의 모험을 그린 가족뮤지컬 '피터팬'.

피터팬을 만난 웬디는 요정 팅커벨과 함께 네버랜드로 모험을 떠나고, 피터팬의 순수한 마음을 없애려는 후크 선장을 만나 위기를 맞게 된다.

이번 무대에서는 배우들의 연기와 더불어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관객들을 네버랜드로 이끈다.

- 📅 3월 7일(토)-8일(일) 오전 11:00, 오후 1:30,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 전석 4만원
- ☎ 좋은사람들 070-7807-0701



신년음악회 자우림 'STARS'

독보적인 음악 세계와 깊이 있는 서사로 세대를 아우르며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자우림의 무대.

김윤아의 개성 있는 보컬과 탄탄한 밴드 사운드로 한국 대중음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자우림은 이번 무대에서 자우림의 음악 여정을 집약한 주옥같은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특히 대중에게 익숙한 명곡부터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곡들까지 폭넓게 구성, 팬들뿐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 📅 2월 5일(목)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 🎫 전석 5만원
- ☎ 동래문화회관 550-6611



**betcover!! 내한 공연
WORLD TOUR EXTRA**

몽환적이면서도 거친 로큰롤 사운드와 재즈, 시네마틱 팝을 능숙하게 융합하는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로 일본 인디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벳커버 내한공연(betcover!! WORLD TOUR EXTRA)'. 후지 록 페스티벌 출연과 성공적인 유럽 투어 경험을 통해 탄탄한 라이브 실력과 글로벌 무대 적응력을 입증한 이들은 한국에서도 음악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벳커버 특유의 다채로운 사운드와 에너지를 직접 만날 수 있다.

- 🎵 2월 6일(금) 오후 8:00 금사락
- 🎫 전석 스탠딩 9만9천원
- ☎ 에스24 1544-6399



싱어게인4 전국투어 콘서트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가수들이 대중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리브팅 오디션 프로그램 JTBC '싱어게인-무명가수전 시즌4'의 전국투어 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최종 TOP10을 비롯한 주요 출연진들이 참여해, 방송에서 선보였던 화제의 경연곡들을 생생한 라이브로 들려준다. 특히 경연의 전율과 감동을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어 종영을 아쉬워하는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 🎵 2월 7일(토) 오후 2:00, 7:00 KBS부산홀
- 🎫 R석 14만3천원, S석 13만2천원
- ☎ NOL티켓 1544-1555



The SOLUTIONS 전국투어 비행

박솔(보컬), 나루(기타), 권오경(베이스), 박한솔(드럼)으로 구성된 4인조 밴드로, 록과 팝을 결합한 새로운 장르인 '퓨처팝(Future Pop)' 장르의 대표 주자인 솔루션스의 무대. 2012년 데뷔하여 일렉트로닉을 토대로 한 감각적이고 세련된 음악으로 주목받은 솔루션스는 이번 무대에서 EP '우화'의 수록곡을 중심으로, 라이브로 쉽게 만나볼 수 없던 곡들까지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 2월 7일(토) 오후 7:00 금사락
- 🎫 전석 스탠딩 7만7천원
- ☎ NOL티켓 1544-1555

콘서트



**2025-26 포레스텔라 콘서트
THE LEGACY in Busan**

배두훈, 강형호, 조민규, 고우림으로 구성된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무대. 네 번째 정규앨범과 동일한 타이틀의 전국 투어 콘서트로, 정규 4집의 신곡을 비롯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선곡과 테마로 무대를 채운다. 'THE LEGACY'는 인류의 탄생부터 황금기, 종말과 구원에 이르는 서사적 흐름을 담은 시네마틱 유니버스 콘셉트로, 포레스텔라가 새롭게 시도하는 확장된 음악 세계를 선보인다.

- 🎵 2월 7일(토), 8일(일) 오후 6:00 벅스코 오디토리움
- 🎫 R석 15만4천원, S석 13만2천원, A석 12만1천원, B석 11만원
- ☎ 에스24 1544-6399



LA POEM SYMPHONY : ALIVE in Busan

테너 유재훈, 카운터테너 최성훈, 바리톤 정민성, 테너 박기훈으로 구성된 남성 4중창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LA POEM)' 무대. 2022년 처음 시작된 '라포엠 심포니'는 라포엠의 대표 브랜드 콘서트로, 이번 무대에서는 1월 20일 발매된 미니 3집 'ALIVE'의 타이틀곡 'Meant to Be'를 비롯해 'Este Amor', '오랜 약속' 등 수록곡 전곡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처음 라이브로 선보인다.

- 🎵 2월 7일(토) 오후 7:00, 8일(일) 오후 5:00 부산콘서트홀
- 🎫 R석 15만4천원, S석 13만2천원, A석 12만1천원, B석 11만원
- ☎ ㈜라이브커넥션 02-2238-0110



CxM 'DOUBLE UP' Live PARTY

그룹 세븐틴 에스콥스와 민규가 유닛 콘서트를 통해 관객과 만난다. 공연명 '더블 업'은 지난 9월 발매된 에스콥스와 민규의 첫 미니앨범 수록곡 '피에스타'에 등장하는 가사로, 함께할 때 더욱 강력해지는 두 사람의 존재감을 상징한다. 자신만의 리듬을 담은 앨범으로 굽직한 족적을 남긴 이들은 이번 라이브 파티를 통해 한층 더 강렬해진 '하이프 바이브즈'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라이브 파티'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음악과 교감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 🎵 2월 13일(금) 오후 7:00, 14일(토) 오후 6:00 벅스코 제1전시장 1, 2홀
- 🎫 전석 14만3천원
- ☎ ㈜월드쇼마켓 1566-5490



2026 10CM Asia Tour
To 10CM: Chapter 1

싱어송라이터 십센치(10CM)가 2026 아시아 투어 일정을 공개하며 새로운 음악 여정의 첫 장을 연다. 이번 투어는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음악과 그 순간을 함께해 온 관객을 떠올리며, 처음 무대에 섰던 마음을 다시 꺼내 보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차곡차곡 쌓아온 시간과 감정 속에서 탄생한 음악들을 통해 십센치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바라보고 느끼는 음악 세계를 무대 위에 펼쳐 보인다.

- 📅 2월 14일(토) 오후 6:00, 15일(일) 오후 4:00
- 📍 백스코 오디토리움
- 💰 R석 13만2천원, S석 12만1천원
- ☎ NO티켓 1544-1555



현진영 감금콘서트 : 부산 신년설특사

대한민국 0세대 힙합 아티스트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현진영 콘서트. SM의 이수만이 처음 기획한 가수로, 1992년 발매한 2집 '흐린 기억속의 그대'로 대중적인 인기를 모은 현진영은 이번 무대에서 '나의 노래와 몸짓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를 주제로 세상이 만든 스트레스와 고난의 굴레 속에서 갇혀 있던 우리에게, 자신의 음악과 몸짓으로 자유와 해방을 선물한다.

- 📅 2월 20일(금)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 실형석 11만원, 집행유예석 9만9천원, 범금형석 7만7천원
- ☎ (주)좋은콘서트 1833-4581



김장훈 원맨쇼

김장훈의 'ONE MAN SHOW'가 돌아왔다. 단순한 콘서트가 아닌, 무대 위에서 노래와 퍼포먼스를 결합한 진짜 '쇼'를 선보인다. 무대를 가득 채우는 에너지와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순간들을 통해, 김장훈은 노래 그 이상의 경험을 전달한다. 감동과 웃음, 때로는 눈물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시종일관 이어지는 퍼포먼스가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 📅 2월 21일(토) 오후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A석 5만5천원
- ☎ (주)좋은콘서트 1833-4581



조영남 전국투어 콘서트
조영남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

수십 년을 노래하고 떠돌고 사랑했던 남자 조영남. 이제는 조금 느리게, 조금 더 진심으로, 그의 인생을 풀어놓는다. 유쾌함 뒤에 숨은 고백, 농담 같은 인생 속의 진짜 이야기, 조영남은 여전히 노래로 말하고, 여전히 무대 위에서 살아 있다. 이번 무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솔직한 이야기와 노래, 그리고 조영남이 전할 특별한 순간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 2월 22일(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 VIP석 12만1천원, R석 11만원, S석 8만8천원
- ☎ (주)좋은콘서트 1833-4581



우리들의 발라드 전국투어 콘서트

진정성 있는 보이스로 명곡을 재해석하며 세대 간 공감대를 넓힌 SBS '우리들의 발라드'가 전국투어 콘서트로 팬들을 찾는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승자 이예지와 TOP 6 멤버 송지우, 이지훈, 천범석, 최은빈, 홍승민을 비롯해 세미파이널 진출자 김윤이, 민수현, 이준석, 임지성, 제레미, 정지웅이 참여하며, 새로운 편곡과 구성으로 특별한 라이브를 선보인다.

- 📅 2월 28일(토) 오후 6:00 KBS부산홀
- 💰 R석 13만2천원, S석 12만1천원
- ☎ (주)밝은누리 1566-9621



2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오페라와 클래식음악에 가까워질 수 있는 수준 높은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오페라/베르디 '라트라비아타'(5일~7일), 바인베르크 '백치'(12일~14일), 드보르작 '루살카'(19일~21일), 베르디 '가면 무도회'(26일~28일)
콘서트/말러교향곡 제8번 '천인'(2일, 7일),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9일, 14일),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16일, 21일), 스크랴빈 교향곡 제3번(23일, 28일)

- 📅 매주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2:00 오페라바움
- 💰 전석 2만5천원
- ☎ 오페라바움 010-4205-1039



**김옥균의 인문학 클래식 아카데미
세계의 클래식명곡연주회 해설감상회**

전 MBC PD이자 클래식음악해설가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인문학 클래식뮤직아카데미'.

프로그램

- 뮤지컬 영화 '미스 사이공' 전편 감상
- 슈만 교향곡 1번, 차이콥스키 교향곡 1번
- 비발디 '화성의 영감'
-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
- 비제 모음곡 '아름의 여인'
- 쇼팽의 탄생지 '폴란드 바르샤바' 다큐 기행
- 막스 부르흐 '스코틀랜드 환상곡'
- 라벨 '볼레로'

-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다송뮤직아트홀**
- 📄 **2개월 10만원**
- ☎ **김옥균 예술감독 010-6367-0149**

서양음악 역사와 함께하는 인문학 클래식 콘서트

부산중구청 국제화센터 평생학습관에서 마련하는 클래식 인문학 강좌.

클래식음악의 정의를 시작으로, 알기쉬운 클래식음악사, 세계가 감동한 음악영화, 세계의 아외음악회 콘서트 실황을 만나다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가 클래식음악 해설가 김옥균의 진행으로 펼쳐진다.

프로그램

- 클래식 음악의 정의
- 알기 쉬운 서양클래식음악사 시리즈 ①~⑦
- 표제 음악과 절대음악,오케스트라의 악기
- 이것이 클래식음악 명화다-세계가 감동한 음악 명화
- 세계의 아외음악회 콘서트실황을 만나다-국제화 시대에 K클래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 📅 **3월 6일(금)-5월 29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2:00**
- 📍 **중구청 국제화센터 평생학습관**
- 📄 **무료**
- ☎ **중구청 국제화센터 홍보교육과 600-4956**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여행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듯이 작곡자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곡의 감상 포인트도 소개해 주는 음악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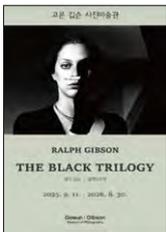
부산가톨릭대학교 음악교육원 외래교수로 있는 박진영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세계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강좌와 더불어 피아니스트 조성진, 임윤찬 등 연주자들의 고음질, 고화질의 영상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 📅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 **부경대학교 미래교육원 향파관**
- ☎ **부경대 미래교육원 629-6785**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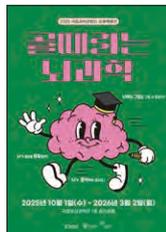
전시



The Black Trilogy

고은 김슨 사진미술관이 초현실주의 사진의 거장, 랄프 김슨의 '블랙 3부작 The Black Trilogy'를 재조명한다. 사진가 고은의 시선과 세계관이 집약된 1970년대 초기 대표작 120여 점의 젤라틴 실버 프린트 120 여점을 새로운 구성으로 선보인다. 전시장 곳곳에는 랄프 김슨의 다양한 사진집과 한 국과의 인연을 보여주는 기록, 그리고 고은사진미술관에서 동시기에 전시를 개막한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거장, 강운구와의 교류 장면도 함께 소개된다.

- 📅 **2025년 9월 11일(목)-2026년 8월 30일(일)**
- 📍 **고은 김슨 사진미술관**
- 📄 **1인 3천원**
- ☎ **고은 김슨 사진미술관 0507-1363-1939**



**2025 국립과학관법인 공동특별전
골때리는 뇌과학**

생각하고, 움직이고, 기억하는 우리의 뇌는 하루 중 일 놀라운 방식으로 작동한다. '골때리는 뇌과학'은 그런 뇌의 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배우는 기초 영역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뇌가 수행하는 역할,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뇌과학이 나아갈 방향까지 풍성하게 만나볼 수 있다.

- 📅 **2025년 10월 1일(수)-2026년 3월 2일(월)**
- 📍 **국립부산과학관 김진재홀**
- 📄 **일반·청소년 6천원, 유아 3천원**
- ☎ **국립부산과학관 1422-23**



소장품심_문소현: 공원 생활

'소장품심'은 부산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작품 한 점을 깊이 있게 소개하는 정례 전시로, 미술관이 자리한 을숙도의 상징성을 담아 이름 지어졌다.

이번 '소장품심'에서는 문소현 특유의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예리한 시선이 깃든 '공원 생활'(2016)을 만나볼 수 있다.

'공원생활'은 스톱모션 기법으로 제작된 12채널 영상 작품으로, 익명의 군중을 담은 무표정한 인형들을 통해 사회 체제 속에서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 **2025년 11월 8일(토)-2026년 2월 18일(수)**
- 📍 **부산현대미술관 전시실1**
- 📄 **무료**
- ☎ **부산현대미술관 220-7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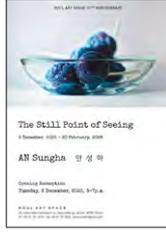


2025년 부산근현대역사관 특별기획전
부산의 보물섬, 영도

영도는 바다 위 고요한 섬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다. 목마장이 달리던 푸른 풀밭, 태종대 절벽에서 펼쳐진 기우제와 활시위의 전설, 전쟁과 이별 속 상처 입은 이들을 품었던 기억까지, 영도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담아왔다.

변화와 회복, 그리고 살아있는 영도의 이야기를 이번 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 📅 2025년 11월 18일(화)-2026년 3월 2일(월)
- 📍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2층 기획전시실
- 🎫 무료
- ☎ 부산근현대역사관 전시팀 607-8043



안성하 The Still Point of Seeing

안성하 작가는 알사탕, 비누, 담배꽂초처럼 우리 일상에서 쉽게 지나쳐버리는 작은 사물들을 하나의 감정적 장면으로 끌어온다. 화면 속 사물들은 단순한 정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과 시간, 그리고 사라진 순간의 흔적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본다는 것'이 단순한 시각적 경험을 넘어, 내면의 감정과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 2025년 12월 2일(화)-2026년 2월 20일(금)
- 📍 소울아트스페이스
- 🎫 무료
-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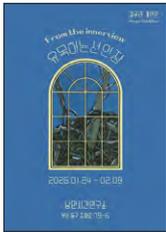


광복 80주년 기념 임시수도기념관 특별기획전
경계와 기억의 땅 하야리아

캠프 하야리아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군용지로 사용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주한미군 부산기지사령부로 운영되다가 오랜 부지 반환 운동을 거쳐 2014년 부산시민공원으로 재탄생한 장소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며 캠프 하야리아 관내 지도, 미군 부대 급여 명세서, 근속 기념 배지, 한국인 노무자들의 사진 등과 함께 시민공원역사관이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 공간의 기억을 생생하게 전한다.

- 📅 2025년 12월 2일(화)-2026년 5월 10일(일)
- 📍 부산시민공원역사관 원형전시실
- 🎫 무료
- ☎ 부산시민공원역사관 850-6061



김유리 개인전 유목하는 선인장

예술공간 낭만시간연구소가 2026년 첫 전시로 마련한 김유리 개인전 '유목하는 선인장'.

김유리 작가는 자기 자신 혹은 현대인이 환경에 적응하며 회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의지를 개인의 주거 공간 속에서 그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도시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이동하고 적응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건축 단면과 선인장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로 풀어낸다.

- 관람시간/오전 10:30~오후 6:30(평일 무인 운영)

- 📅 1월 24(토)-2월 8일(일)
- 🎫 무료(예약필수)
- ☎ 낭만시간연구소 010-5954-2544



신도성 작품전 발 디딜 곳 찾지 못한 채

광안리에 위치한 스페이스 167이 선보이는 신도성 작품전.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의 얼굴 없는 초상을 통해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세계가 얼마나 얇고 불안정한지, 그 위에서 서 있는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조용히 보여준다.

- 📅 1월 24일(토)-2월 21일(토) 스페이스 167
- 🎫 무료
- ☎ 스페이스167 0507-1317-1978



**고은사진미술관+KT&G 상상마당
올해의 작가전**

고은사진미술관은 2012년부터 KT&G 상상마당과 함께 사진의 정통성을 기반으로 작업의 완성도와 실험정신을 겸비한 신진 작가를 발굴·지원하는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올해의 최종 사진가'로 선정된 성의석과 '올해의 사진가'로 선정된 김영경, 지원금의 작업을 소개한다.

올해의 작가 3인은 사진을 기록적, 확장적, 실험적 매체로 활용하여 과거의 기억-현재의 감각-미래의 징후를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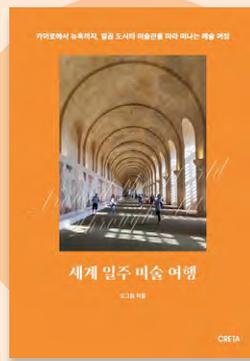
- 📅 1월 29일(목)-3월 27일(금) 고은사진미술관
- 🎫 무료
-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일상을 가다듬는 나의 철학 루틴

박정은 지음
보민출판사 / 1만 5,000원

박정은 부산여성신문 편집국장이 우리가 잊고 지낸 철학의 본래 얼굴을 따뜻하게 되살려낸다. 저자는 “철학은 학문이 아니라 삶을 단단히 붙드는 루틴”이라고 말한다. 불안과 혼란, 선택과 후회를 반복하는 우리의 일상에 13명의 철학자를 불러내어 삶을 추스르고 가다듬도록 돕는다. 그리하여 철학을 책상 위 학문이 아니라, 반복되는 오늘을 단단히 붙드는 습관으로 제시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평정,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덕, 니체의 초인, 부처의 마음다스림, 알랭의 행복론, 몽테뉴의 자기성찰... 각 장은 철학자의 사상을 단순한 이론이 아닌 ‘생활 속 루틴’으로 풀어낸다. 저자가 제안하는 철학 루틴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법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마다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듯, 매일 저녁 하루를 정리하듯, 철학 또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길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삶을 단단히 붙드는 지혜로운 습관을 선물한다.



세계 일주 미술 여행

오그림 지음
크레타 / 2만 2,000원

여행지에서 만나는 미술관은 그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모두 품고 있는 거대한 아카이브와 같다. 그곳에 놓인 작품들에는 한 도시가 지나온 역사와 나라의 운명을 뒤흔든 사회적 이슈, 동시대의 문화 트렌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트 살롱 오그림’ 대표인 저자는 이 책에서 보이는 것 너머의 이야기를 짚어내며 각 공간의 의미를 생생하게 풀어낸다. 저자는 이집트의 카이로와 룩소르에서 시작해 르네상스의 심장인 이탈리아 피렌체, 예술의 수도인 프랑스 파리, 제국의 황금빛 흔적을 품은 오스트리아 빈, 서양 예술을 수집하고 재해석해 낸 일본 도쿄, 현대 미술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을 여행하며 느낀 감상과 깨달음을 세밀한 현장 감각과 미술사적 흐름을 더해 이야기한다. 미술관을 어렵게만 느꼈던 독자들에게는 이해의 실마리를, 여행에서 감각의 확장을 원하는 독자에게는 새로운 방향성을, 예술과 생활을 연결한 삶을 기대하는 독자에게는 깊은 사유의 계기를 제공한다.



프랑스 축제들

이상빈 지음
아트레이크 / 5만 8,000원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 행사, 현대 예술 전시회에서부터 프로방스의 라벤더 향연, 브르타뉴의 해양 축제나 알자스의 와인 축제, 코르시카의 전통 음악제와 중세 유적을 무대로 삼는 연극제, 성대한 빛과 소리의 축제... “축제가 있는 곳에 슬픔은 머물지 않는다”는 구전 속담이 있을 만큼, 프랑스에서 축제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삶을 다시 견디게 하는 의식이기도 하다. 이 책은 프랑스 전역에서 열리는 거의 모든 축제를 정성스레 엮어내고 펼쳐 보인다. 이상빈 저자는 ‘프랑스 문화 3부작’으로 <나의 프랑스> <프랑스 지방 문화> <프랑스 축제들>을 완성했다. 저자는 축제의 단편적 정보만을 담아내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예술과 일상, 신앙과 역사, 자연과 문명, 전통과 트렌드가 어우러지며 다양하게 발전해 온 과정을 들여다본다. 프랑스를 사랑하는 여행자에게는 새로운 안내서가, 문화 연구자와 콘텐츠 기획자들에게는 생생한 현장 자료가 되겠다.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6 상반기 공연프로그램 안내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전화예매 | 대표번호 051-607-60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7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취소마감은 공연 전날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

2026. 1-6월

January - June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따뜻한 감성동화 대한민국 대표 가족뮤지컬
가족뮤지컬 <구름빵>

문화 | 중극장 2026. 1. 23.(금)-24.(토)
 금요일 10:30am, 2:00pm, 토요일 11:00am, 2:00pm
 ※금요일 오전 회차는 단체관람만 가능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프로듀서 | 정유란 • 연출 | 이태린 • 극본 | 서희정
 ※ 관람연령 | 전체관람가(1인 1좌석)



당신의 삶이 영화가 되는 시간
시네마 파라디소 <Begin Again>

문화 | 중극장 2026. 3. 14.(토) 2:00pm
 R석 55,000원 S석 44,000원
 • 출연 | 홍진호(첼로), 박현수(보컬), 조윤성(피아노),
 석다연(드럼), Sean Pentland(베이스)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피와 욕망, 권력에 눈먼 자들의 광기
연극 <칼로막베스>

문화 | 중극장 2026. 4. 4.(토)-5.(일) 3:0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관람연령 | 13세 이상 관람



사실 그 날, 용궁에선 기록에 남지 않은
비밀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다!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문화 | 사랑채 2026. 5. 2.(토) - 7. 25.(토)
 평일 10:30am(단체관람), 토요일 및 공휴일 11:00am, 2:00pm
 *일요일 및 월요일 공연 없음
 전석 30,000원
 ※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관람(1인 1좌석)



부산시민회관

기억이 불러온 가상은 현실의 위로일까, 망상일까
연극 <시물라시옹>

시민 | 소극장 2026. 1. 16.(금)-17.(토)
 금요일 7:30pm, 토요일 3:00pm
 전석 50,000원
 • 연출 | 이태린 • 작가 | 최왕현
 • 출연 | 송철호, 신사랑, 유연, 안창현, 임지영, 송예준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공연계 최고 권위의 상 "TONY AWARDS!" 6관왕 수상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시민 | 대극장 2026. 2. 1.(일)-2. 8.(일)
 화-목 7:30pm, 금요일 3:30pm, 7:30pm, 주말 2:00pm, 6:30pm
 R석 90,000원 S석 80,000원 A석 70,000원
 • 작곡가 | 박천후 Hue Park
 • 작곡·편곡 | 윌 애런슨 Will Aronson
 ※ 관람연령 | 14세 이상 관람



부산 클래식의 저력, 음악적 드라마의 완성
Sound of Busan: 올 댓 차이콥스키

시민 | 대극장 2026. 2. 27.(금), 6. 19.(금),
 8. 21.(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출연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네오편하모닉오케스트라,
 뉴아이티드코리안오케스트라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라보’의 클래식 상자 - 하이든>

시민 | 소극장 2026. 2. 28.(토) 11:00am, 2:00pm
 전석 30,000원
 • 출연 | 라보(시간여행 가이드), 라보챔버오케스트라
 ※ 관람연령 | 30개월 이상(1인 1좌석)



시대를 넘어 사랑받는 발레의 정수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시민 | 대극장 2026. 3. 19.(목)-20.(금) 7:3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50,000원
 • 출연 | 국립발레단
 • 음악 |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
 • 안무 | 유리 그리고로비치(Yuri Grigorovich)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진짜 내 안의 나를 찾아서
뮤지컬 <인사이드 미>

시민 | 소극장 2026. 3. 28.(토) 2:00pm, 5: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연출 | 서홍석 • 음악·안무 | 이윤희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데뷔 70주년을 맞은, 건반위의 구도자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시민 | 대극장 2026. 4. 3.(금) 7:30pm
 R석 100,000원 S석 70,000원 A석 50,000원
 • 출연 | 백건우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동서양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
살롱드 국악 I - 첼로가야금

시민 | 소극장 2026. 4. 10.(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출연 | 김 솔 다니엘(첼로), 윤다영(가야금)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무속음악의 핑키(funky)함을 전하다
살롱드 국악 II - 추다혜차지스

시민 | 소극장 2026. 4. 17.(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출연 | 추다혜(리더, 보컬), 시문(기타), 김재호(베이스), 김다빈(드럼)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제45회 서울연극제 자유경연작 부문 '최우수상' 수상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The Clown>

시민 | 소극장 2026. 4. 23.(목) 2:00pm(단체관람),
24.(금) 2:00pm(단체관람), 7:30pm, 25.(토) 2:00pm
전석 40,000원
• 원작 | 윌리엄 셰익스피어 • 연출 | 홍성연
• 출연 | 강나리, 구옥분, 류찬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시민의 일상에 예술을 더하다!
<2026 시민뜨락축제(상반기)>

시민 | 야외광장 2026. 4-5월 예정 12:10pm
무료



하츠피프과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
<블링블링 캐치! 티니핑 심포니>

시민 | 대극장 2026. 5. 2.(토) 5:00pm
R석 88,000원 S석 77,000원 A석 66,000원
• 출연 | 지휘자 김성진, 디토 오케스트라, 뮤지컬 배우 6인
※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관람(1인 1좌석)



화류비련극의 레전드가 온다
화류비련극 <홍도>

시민 | 대극장 2026. 6. 12.(금)-13.(토)
금요일 7:30pm, 토요일 3:0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원작 | 임선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 각색/연출 | 고선웅
※ 관람연령 | 13세 이상 관람(중학생 이상)



집착에 눈 먼 자들이 벌이는 그로테스크한 난장
창극 <살로메>

시민 | 대극장 2026. 8. 29.(토) 3:0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출연 | 김준수 외 (추후공개) • 원작 | 오스카 와일드 Salome
• 극본 | 고선웅 • 연출 | 김시하
※ 관람연령 | 13세 이상 관람(중학생 이상)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 부산콘서트홀 / **낙동** 낙동아트센터 / **금정** 금정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2026 신년음악회

시민 | 대극장 2026. 1. 15.(목)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지휘 | 백승현
• 바이올린 | 김현서



제627회 정기연주회
DIGNITY

부산 | 콘서트홀 2026. 1. 29.(목)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지휘 | 홍석원



제628회 정기연주회
겨울, 꿈

시민 | 대극장 2026. 2. 26.(목)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지휘 | 홍석원
• 피아노 | 신창용



기획연주회
실내악 시리즈 I

문화 | 중극장 2026. 3. 20.(금) 7:30pm



제629회 정기연주회
축제

부산 | 콘서트홀 2026. 3. 26.(목) 7:30pm
낙동 | 콘서트홀 2026. 4. 1.(수)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지휘 | 홍석원
• 바이올린 | 요한 달레네



기획연주회
실내악 시리즈II <죽음I>

문화 | 챔버홀 2026. 4. 15.(수) 7:30pm



제630회 정기연주회

EROICA

부산 | 콘서트홀 2026. 4. 24.(금)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지휘 | 백승현
• 피아노 | 김다솔



기획연주회

우리 아이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6. 5. 6.(수) 11:00am, 7:30pm



제631회 정기연주회

부산, 말러

부산 | 콘서트홀 2026. 6. 18.(목)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지휘 | 홍석원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부산-광주 교류음악회 'Friendly Concert'

낙동 | 콘서트홀 2026. 3. 17.(화) 7:30pm
• 지휘 | 이기선, 임창은
• 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어린이 뮤지컬 '꿈을 향해!'

문화 | 중극장 2026. 5. 1.(금) 7:30pm,
5. 2.(토) 11:00am, 3:00pm
• 지휘 | 엄보영



제200회 정기연주회

벤저민 브리튼 'War Requiem'

부산 | 콘서트홀 2026. 5. 28.(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합창 | 부산-광주-대구시립합창단,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201회 정기연주회

2026 SUMMER FANTASY

문화 | 중극장 2026. 7. 23.(목) 7:30pm
• 지휘 | 엄보영
• 타악 | 이성하
• 연주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202회 정기연주회

현대합창의 밤VI

문화 | 중극장 2026. 9. 18.(금) 7:30pm
• 지휘 | 이기선



특별연주회

제37회 부산합창제

문화 | 중극장 2026. 11. 3.(화)-11. 5.(목) 7:00pm
• 지휘 | 이기선



제203회 정기연주회

2026 송년음악회 'A Child of Our Time'

부산 | 콘서트홀 2026. 12. 3.(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합창 |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제93회 정기공연

바다결에 오래였으나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시민 | 대극장 2026. 4. 24.(금) 7:30pm,
4. 25.(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운



특별공연

이정운의 댄스살롱 - 한 여름밤의 댄스파티

장소 미정 2026. 7. 24.(금) 7:30pm, 7. 25.(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운



제94회 정기공연

동백

시민 | 대극장 2026. 10. 30.(금) 7:30pm, 10. 31.(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운



특별공연

홀로홀출 나의 길 나의 춤

문화 | 중극장 2026. 12. 11.(금) 7:30pm, 12. 12.(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2026 신년음악회

금정 | 금빛누리홀 2026. 2. 12.(목)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특별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영남 風流’

시민 | 대극장 2026. 3. 26.(목) 7:30pm
• 지휘|이동훈, 이건설



특별연주회
국악 브런치 콘서트 ‘국악 살롱, Salon’

문화 | 중극장 2026. 4. 23.(목) 11:00am
• 예술감독|이동훈



제234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V ‘사제 동행’

문화 | 중극장 2026. 5. 14.(목) 7:30pm
• 예술감독|이동훈



제235회 정기연주회
국악의 날, 다시 울리는 우리 소리

문화 | 중극장 2026. 6. 5.(금) 7:30pm
• 예술감독|이동훈



예술교육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하는
‘역사 속 우리 음악 이야기’**

시민 | 대극장 2026. 7. 2.(목)-7. 3.(금) 10:30am
• 예술감독|이동훈



특별연주회
열대야 국악 재즈 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6. 8. 11.(화) 7:30pm
• 예술감독|이동훈



제236회 정기연주회
부산, 청년

문화 | 중극장 2026. 9. 17.(목) 7:30pm
• 예술감독|이동훈



특별연주회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

문화 | 중극장 2026. 9. 30.(수) 7:30pm
• 예술감독|이동훈



제237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VI
‘2026 부산 국악작곡콩쿠르’**

문화 | 중극장 2026. 10. 29.(목) 7:30pm
• 예술감독|이동훈



특별연주회
**제51회 청소년 협연의 밤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6. 11. 24.(화) 7:30pm
• 예술감독|이동훈



제238회 정기연주회
2026 송년음악회 ‘No Boundary’

시민 | 대극장 2026. 12. 18.(금) 7:30pm
• 예술감독|이동훈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어린뮤지컬아카데미 ‘오즈의 마법사’

문화 | 중극장 2026. 2. 28.(토) 3:00pm, 7:00pm,
3. 1.(일) 1:00pm, 5:00pm
전석 10,000원
• 원작|라이먼프랭크 바움
• 각색, 연출|윤준기 • 작곡|강현민
※ 관람연령|전체 관람가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신데렐라_너의 뜻대로’

문화 | 사랑채극장 2026. 4. 3.(금)-4. 25.(토) 평일 11:00am,
토요일 11:00am, 2:00pm
전석 12,000원
• 대본, 작사|김영화 • 작곡, 음악감독|이영재
• 작사, 연출|김지용 • 안무|홍충민
※ 관람연령|전체 관람가(48개월 이하 부모동반관람 권장)



제82회 정기공연
타오

문화 | 중극장 2026. 7. 2.(목)-7. 3.(금) 7:30pm,
7. 4(토) 4:00pm
전석 20,000원
• 원작|김세화
• 각색, 연출|허석민
※ 관람연령|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제83회 정기공연
메데이아

시민 | 소극장 2026. 9. 10.(목)-9. 11.(금) 7:30pm,
9. 12(토) 4:00pm
전석 20,000원
• 원작|에우리피데스
• 연출|박용희
※ 관람연령|중학생 이상 관람가



제84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미스 즐리'

시민 | 소극장 2026. 11. 27.(금) 7:30pm, 11. 28.(토) 4:00pm
전석 20,000원
• 작 |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
• 연출 | 최용혁
※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관람가



제84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인형의 집'

시민 | 소극장 2026. 12. 4.(금) 7:30pm, 12. 5.(토) 4:00pm
전석 20,000원
• 작 | 헨리옌 입센
• 연출 | 이혁우
※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관람가



제84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바다로 가는 기사'

시민 | 소극장 2026. 12. 11.(금) 7:30pm, 12. 12.(토) 4:00pm
전석 20,000원
• 작 | 존 밀링턴 싱
• 연출 | 차승호
※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관람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9회 정기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6. 3. 18.(수) 7:30pm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낙동 | 콘서트홀 2026. 5. 14.(목) 7:30pm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6. 6. 27.(토) 5:00pm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6. 7. 18.(토) 5:00pm



제80회 정기연주회

부산 | 콘서트홀 2026. 9. ※ 날짜미정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6. 10. 28.(수) 7:30pm
• 지휘 | 백승현



제81회 정기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6. 12. 16.(수) 7:30pm
• 지휘 | 백승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Friendly Concert

문화 | 중극장 2026. 3. 7.(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69회 정기연주회
뮤지컬 '공쥐 팔쥐'

문화 | 중극장 2026. 5. 30.(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70회 정기연주회
더 큰 꿈을 향하여... Dreams to Dream

문화 | 중극장 2026. 9. 19.(토) 5:00pm
• 지휘 | 천경필



특별연주회
제37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중극장 2026. 11. 6.(금)-11. 7.(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71회 정기연주회
우리 함께 노래해요 We sing together

문화 | 중극장 2026. 12. 19.(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특별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수(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
*차량번호 등록 시 할인 적용(1대에 한하며, 신청 후 7일 이내 등록)
- 부산 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VIP



연회비 10만원

초대권 8매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회비 5만원

초대권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

(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가입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취소 불가)

SPECIAL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연극 <시물라시옹> 종료

2026년 1월 16일(금) 오후 7:30

1월 17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가족뮤지컬 <구름빵> 종료

2026년 1월 23일(금) 오전 10:30, 오후 2:00

1월 24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10매)

Sound of Busan : 올 댓 차이콥스키

#1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교향곡 제4번 종료

2026년 2월 27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라보'의 클래식 상자 - 하이든>

2026년 2월 28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시네마 파라디소 <Begin Again> 종료

2026년 3월 14일(토)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10매)

뮤지컬 <인사이드 마> 종료

2026년 3월 28일(토) 오후 2:00,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1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6년 상반기 예매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매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종료**

2026년 4월 3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10매)

연극 <칼로막베스> **종료**

2026년 4월 4일(토) 오후 3:00
4월 5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10매)

살롱 드 국악 I - 첼로가야금 **종료**

2026년 4월 10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살롱 드 국악 II - 추다혜차지스 **종료**

2026년 4월 17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The Clown> **종료**

2026년 4월 23일(목) 오후 2:00
4월 24일(금) 오후 2:00, 오후 7:30
4월 25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금 19:30, 토 14:00 회차별 10매)

블링블링 캐치! 티니핑 심포니

2026년 5월 2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화류비련극 <홍도> **종료**

2026년 6월 12일(금) 오후 7:30
6월 13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20매)

Sound of Busan : 올 댓 차이콥스키

#2 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_교향곡 제5번 **종료**

2026년 6월 19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Sound of Busan : 올 댓 차이콥스키

#3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_교향곡 제6번 **종료**

2026년 8월 21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창극 <살로메> **종료**

2026년 8월 29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 1인 1매에 한해 예매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명예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홍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주)코팩스 회장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재)대송문화재단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주)한성테크 회장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김태진
류용주
손명찬
오권석

(주)플라시스템 대표이사
삼신교통(주) 회장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주)성원 회장

임말섭
정문흠
정상배

(주)미성하이텍
(주)태영버스 회장
한국라이언기초건설(주) 회장

* 이사회원

강대일
강서룡
곽국민
권한상

웰딩시스템 대표
(주)효승테크 대표이사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김성우
김암우
김현태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주)상명 회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 김홍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 신한춘 (주)금정화운 대표이사
-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 이성규 김해주차장 대표
-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 이은석 (주)엘제이 이앤에스 대표이사
-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조기중 조기중치과의원 원장
-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 허정은 (주)제이세라믹 대표이사
-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 강득용 (주)프리미엄에셋 대표이사
-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 문민우 명인제약
-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 박홍근 삼강종합건설(주)
- 성원기 손내과의원 원장
- 손혜경 하나유치원 원장
- 안금주 경성대학교 교수
- 안진우 세무법인 인성
-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 이상수 엘가 대표
- 이성임 굿엔프랜드주식회사
- 이수민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 이에리카정애 명성피셔리 주식회사
- 이종원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이현숙
- 임은자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원장
- 정명선 정민섭산부인과 원장
- 정민섭
- 정의화 (전)국회의장
-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 조준형 문우당서점 해광출판사 대표
- 하정태 (주)일신케미칼 사장
-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허혜영

■ 기본 예우

-  VIP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정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 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 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 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 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회원
멤버십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회원
멤버십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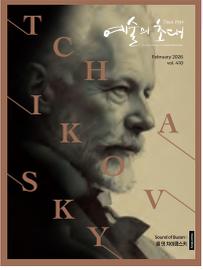
👑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 제휴업체 할인(사정 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 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구(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퍼즐풀기

✿ 2026. 1. 26.(월)~2. 13.(금)

✿ 2026. 2. 20.(금)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지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 기프트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2026년 1월호 낱말퍼즐 당첨자 명단

010-****-3742 010-****-4522 010-****-3881
010-****-5953 010-****-4862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에

올려주시면추첨을 통해 초대권 또는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배시시TV

(재)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주차안내



사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출구에서 기다림 없이 빠른 출차가 가능합니다.

주차요금 안내

입차 후 4시간 이내	2천원
4시간 이후 10분당	200원
1일 최대	4,700원

할인대상(50%)

- 정기회원, 국가 유공자, 장애인
- 경차, 친환경, 다자녀, 요일제
- 다회(2회 이상) 수강등록한 아카데미 수강생

정기회원 주차 안내

• 무료주차권 사용

기존의 정기회원 주차쿠폰은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우편을 통해 새로운 바코드주차권을 발송해드렸습니다.

주차권을 수령하지 못한 회원들은 고객센터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주차요금 할인

기존 정기회원카드 제시가 아닌 사전 등록 차량에 회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하며, 정기회원 기간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 등록 방법

E-메일(cus@bscc.or.kr), 고객센터센터를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 차량번호 신청 후 7일 이내 등록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051)607-6000

(평일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2026년 (재)부산문화회관 SNS프렌즈 모집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및 부산시립예술단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할 'SNS프렌즈(구 SNS서포터즈·주부홍보단 통합)'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내용

- 모집분야 : SNS프렌즈
- 인원 : 50명
- 모집 기간 : 2026.1.19.(월) ~ 2026.2.11.(수) (24일간)
- 첨부된 지원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oops1687@bscc.or.kr)
- 합격자 발표 : 2. 13.(금)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예정

응시요건

- 만19세 이상 SNS채널(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운영중인 부산 거주 시민(기타 채널 제외)
- 각종 SNS 사용이 가능하고 활성도가 높은 계정을 운영하는 자
-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SNS를 통한 홍보활동에 평소 관심이 많은 자
- 문화예술, 언론, 디자인 관련 전공자 및 관계자 우대

활동내용

- 개인 SNS 채널 내 공연/전시 **사전홍보**, **후기 게시물** 게재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예술단 기획 프로그램 대상)
- 만족도조사 참여, 회관 공식 SNS와의 협업 등 기타 기관 사업 협조

활동지원

- 활동대상 공연/전시 관람 시 인당 1~2매 티켓 제공
- 활동기간 내 정기회원(예술단회원 3만원 상당) 가입 및 혜택 제공
- 월간지 내 기고 시 규정에 따른 원고료 지급
- 수료기간 충족 시 수료증 발급 및 기념품 제공

수료기준

- 연 7회 이상 공연/전시 활동 참석 및 홍보글 15건 이상 작성
(※ 관람 여부와 관계없는 홍보글 작성도 가능)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지원팀 담당자

☎ 051-607-6073

✉ oops1687@bscc.or.kr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라보'의 클래식 상자

하이든



2026. 2. 28.(토) 11시/14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KOREAN NATIONAL BALLET

SWAN LAKE

백조의 호수



2026. 3. 19.(목)-20.(금) 19: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출연 | 국립발레단 | 티켓 |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5만원 | 입장연령 | 7세 이상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NOL ticket 1544-1555

